

보험동향 2019년 겨울호

총괄	조영현 (연구위원)
경영환경	최예린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권오경 (연구원)

■ 목차

I. 경영환경

1. 경제 / 2
2. 금융 / 11
3. 자금흐름 / 16
4. 규제·제도 / 19

II. 보험 동향

1. 성장성 / 22
2. 수익성 / 44
3. 리스크 / 56
4. 시장경쟁 / 59

I.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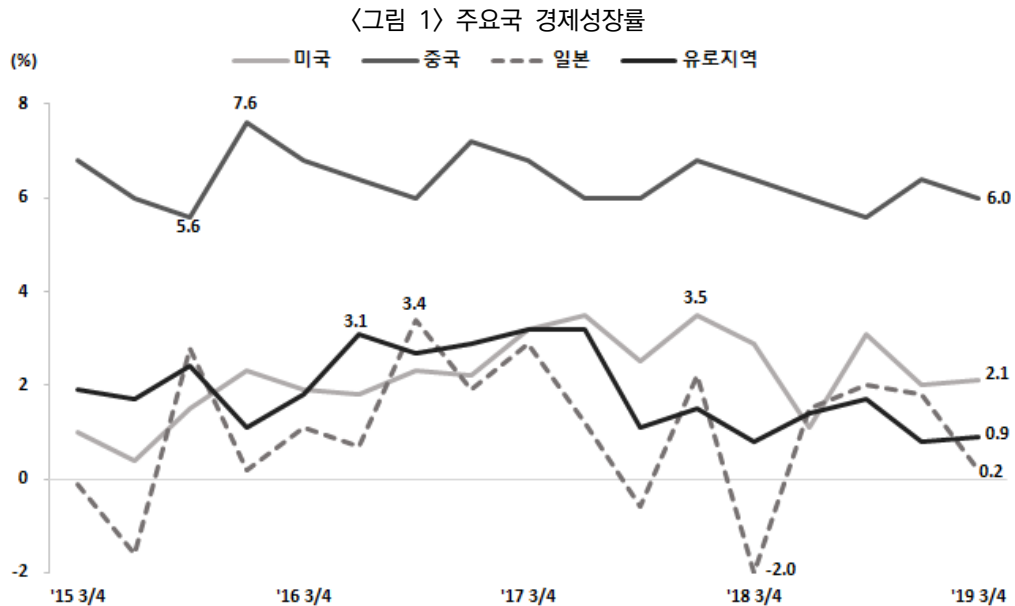
- 가장 큰 하방위험인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이며,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50 이하로, 제조업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음
- 우리나라 경기는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0%대로 매우 저조함
 - 주요 국내기관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2.3%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금리는 장기물 위주의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이란 갈등, 브렉시트 등 다양한 하방리스크로 인해 장기물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4분기 코스피(KOSPI)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국내 기업실적 회복 기대감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0~2,215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진행 양상, 홍콩 대규모 시위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150~1,210원 사이에서 움직임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4분기 25.7%를 기록함

1. 경제

가. 세계경제

■ 주요국 중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미국과 유로지역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으로 보임

- 2019년 3/4분기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하여 각각 2.1%, 0.9%를 기록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4%p, 1.6%p 하락한 6.0%, 0.2%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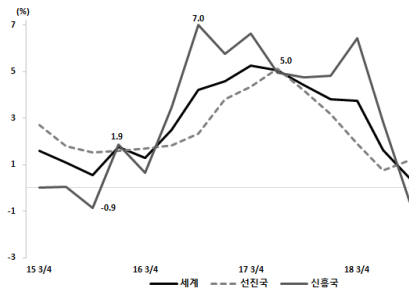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11); 중국 국가통계국(2019. 10); 일본 내각부(2019. 11); Eurostat(2019. 12)

■ 2017년 3/4분기 이후 둔화된 세계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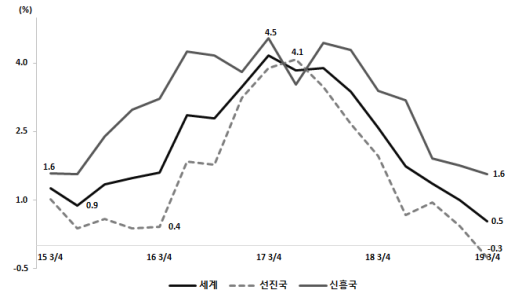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증가한 0.1%를 기록하였지만,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주요국 무역갈등, 중국과 대만·홍콩의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8%p 하락한 -2.7%를 기록함

- 2019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각각 0.7%p, 0.2%p 하락한 -0.3%, 1.6%를 기록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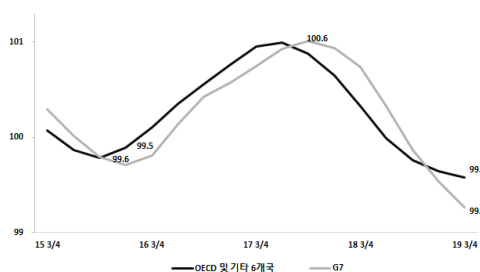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9. 11)

- 세계 경기선행지수¹⁾는 2017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여, 세계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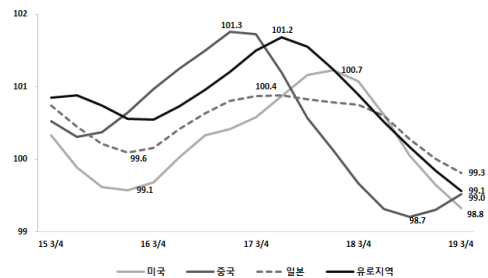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0으로 전분기보다 0.2 하락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은 각각 0.4, 0.2, 0.2 하락한 98.8, 99.3, 99.1을 기록함

- 한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2 상승한 99.0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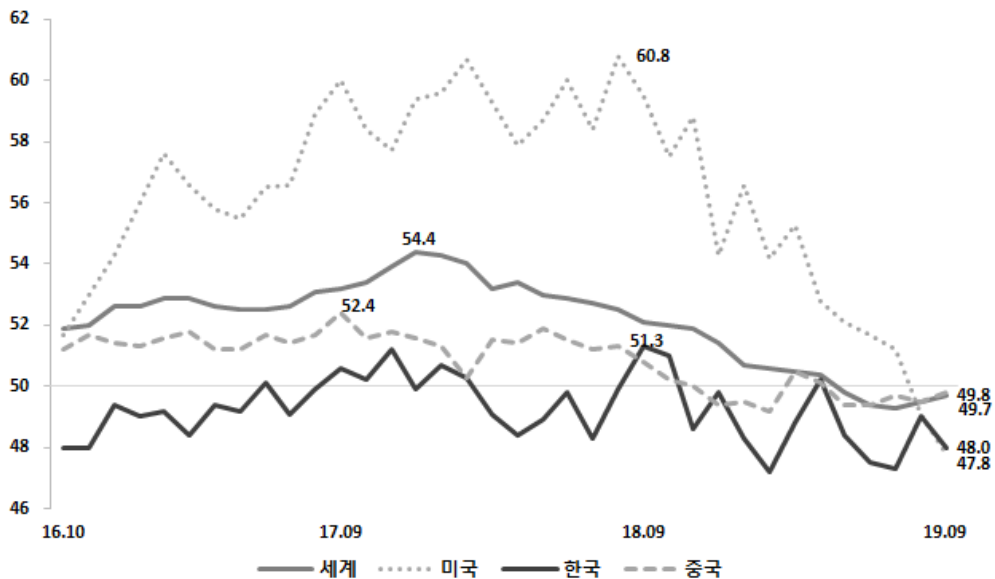
자료: OECD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락을 의미함

■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50 이하로, 제조업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음

○ 2019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49.7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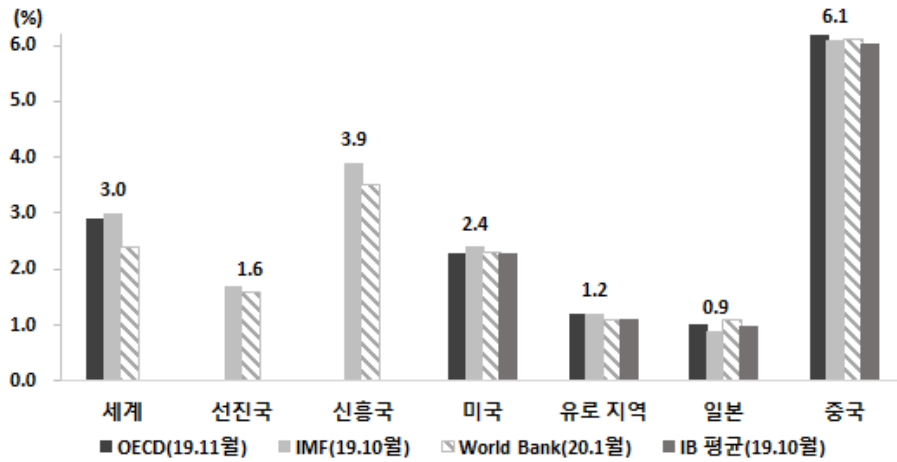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 무역분쟁 장기화, 신흥국 금융시장 취약성 확대 등의 영향³⁾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 World Bank는 최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2%p 하향 조정하여 2.4%로 발표함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함

3) World Bank(2020. 1), *Global Economic Prospects*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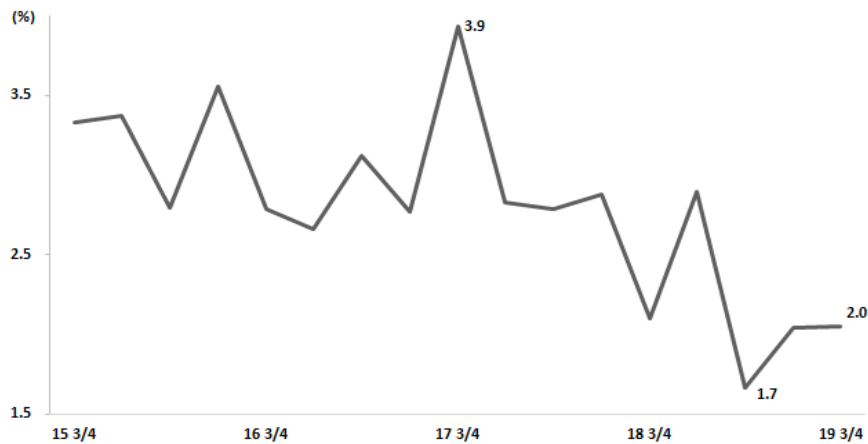
자료: IMF, OECD, World Bank, 4개 IB 평균임

나. 국내경제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2.0%를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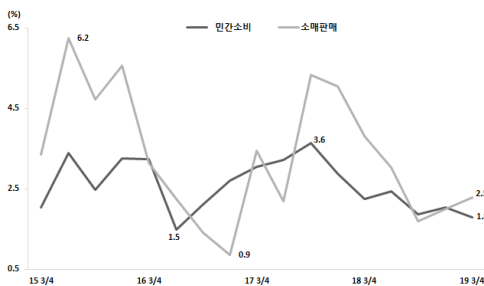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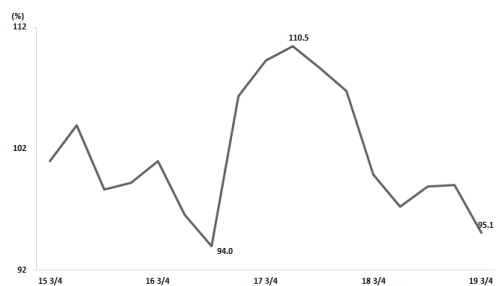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주요 경제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⁴⁾ 전분기보다 3.9 하락한 95.1을 기록함
- 다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소폭 반등하여 2.3%를 기록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은 1/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건설수주 및 기계수주도 부진한 모습임

- 2019년 3/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건설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여 각각 -3.7%, 2.5%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 및 9월 중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류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⁵⁾ 상승함

- 2019년 3/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하여 -0.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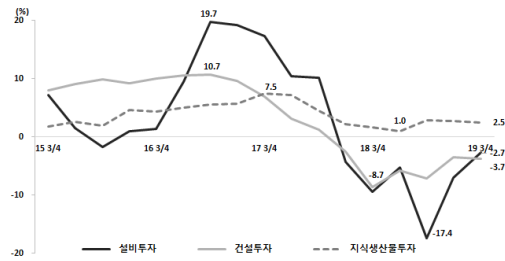
- 건설수주 증가율은 9월 중 철도·궤도 등 토목 부문이⁶⁾ 크게 증가하여 상승함

4) 국회예산정책처(2019. 8), 『NABO 경제동향&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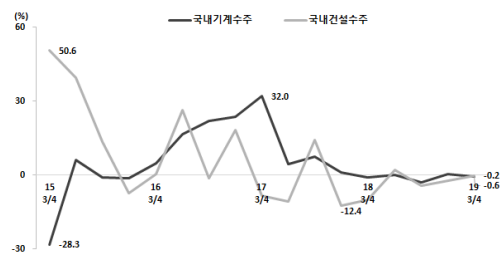
5)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9. 10),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6) 통계청 보도자료(2019. 10),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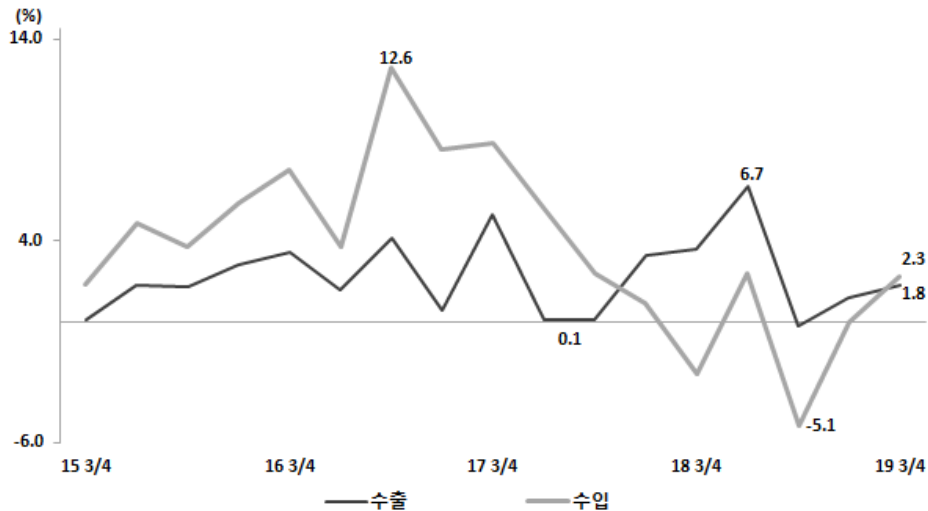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감
○ 미·중 무역갈등 및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른 전분기 기저효과와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019년 3/4분기 수출 증가율은 0.6%p, 수입 증가율은 2.3%p 상승하여 각각 1.8%, 2.3%를 기록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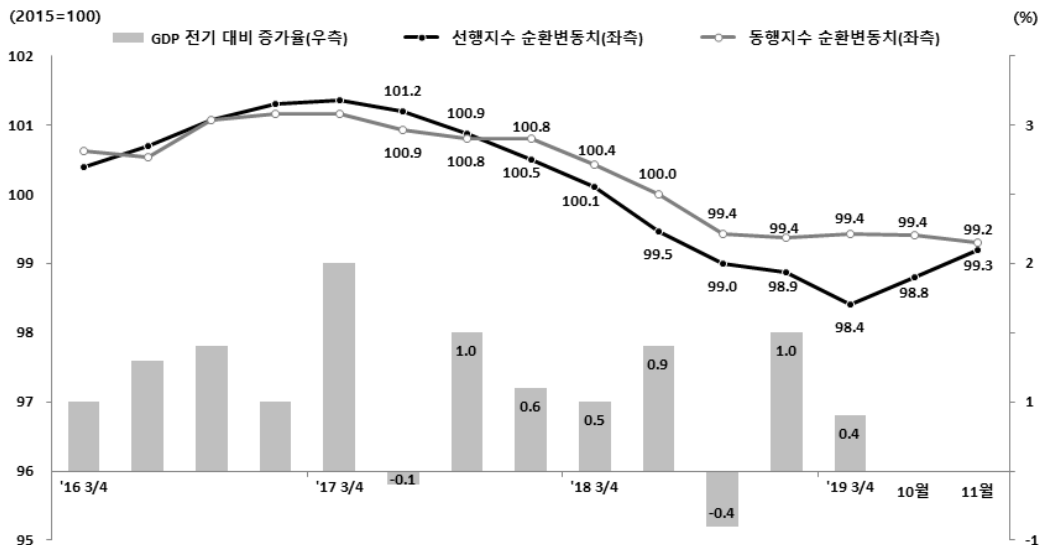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분기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9년 3/4분기 경기 동행지수⁷⁾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같은 99.4를 기록함
- 2019년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및 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로⁸⁾ 전월 대비 0.2 하락함
- 2019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⁹⁾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 기대지수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5 하락한 98.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스피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¹⁰⁾ 상승하여 11월에 99.3을 기록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19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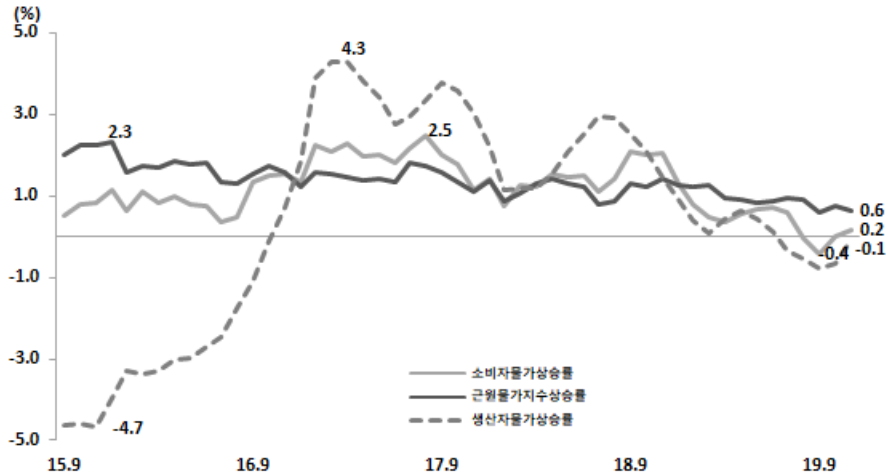
■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0.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월에 0.2%로 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하락세임

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9)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0)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률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함

- 농산물 가격 상승률¹¹⁾: -13.8%(‘19. 9) → -7.5%(‘19. 10) → -5.8%(‘19. 11)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19년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입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2018년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²⁾들도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저 1.8%에서 최고 2.0%로 전망함

○ 2020년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수출 및 민간수요 회복으로 2019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2),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 9개 IB(Barclays, BoA Merrill Lynch,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 Morgan, HSBC, Nomura, UBS)의 2019년 11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F) ¹⁾		2020(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3.1	2.7	2.0	2.0	2.3	2.3
민간소비	2.6	2.8	1.9	1.9	2.1	2.1
설비투자	14.6	-2.4	-7.8	-7.0	4.9	8.0
지식생산물투자	3.0	2.2	2.7	2.6	3.4	4.1
건설투자	7.6	-4.3	-4.3	-4.1	-2.3	-3.0
상품수출	3.8	3.3	-0.4	-0.4	2.2	2.8
상품수입	7.4	1.6	-1.6	-0.9	2.4	3.8
실업률	3.7	3.8	3.8	3.8	3.7	3.5
소비자물가	1.9	1.5	0.4	0.4	1.0	0.6
경상수지	752	764	570	575	560	589
상품수지	1,136	1,119	775	778	800	767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384	-355	-205	-203	-240	-179

주: 1) 2019(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19.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19. 11),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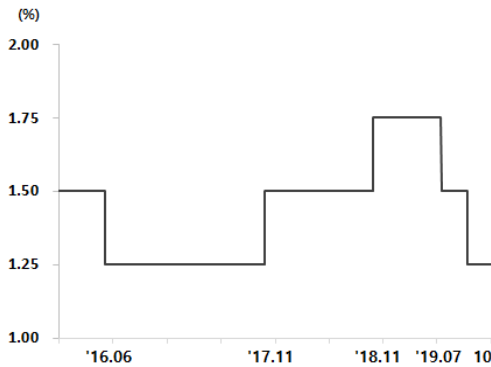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 금융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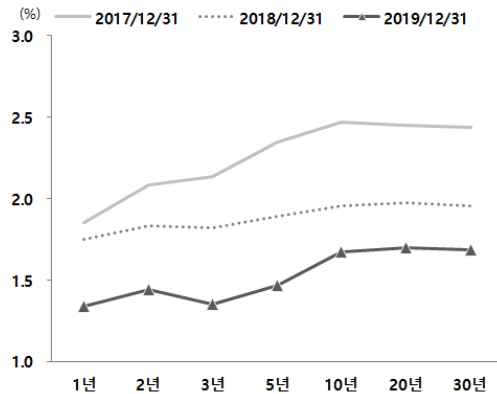
- 2019년 11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동결함¹³⁾
- 국내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 분쟁 이슈, 중국경제 둔화 등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20년 경제성장률(0.2%p)과 소비자물가상승률(0.3%p)을 하향 조정함
 -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은 현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우나 지난 두 차례의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함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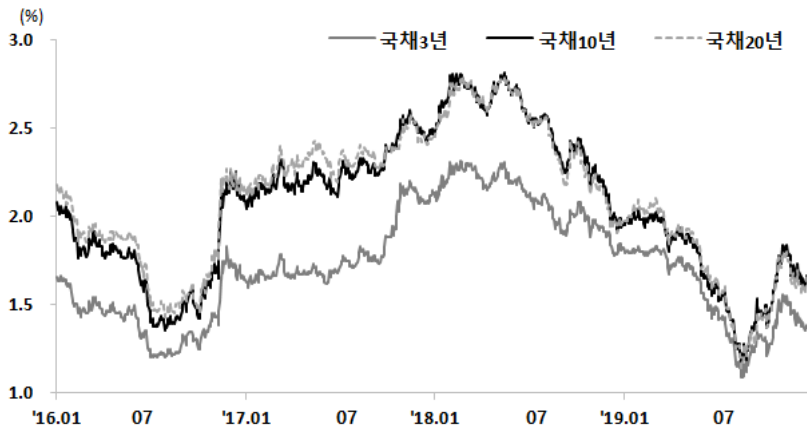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정부의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단,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는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3) 한국은행(2019. 11. 29), “2019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회의록”

〈그림 18〉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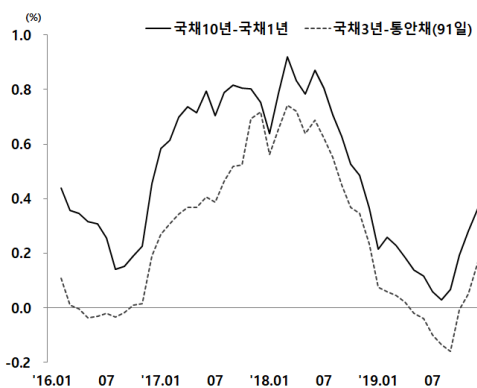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으며, 신용스프레드도 소폭 확대됨

○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및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¹⁴⁾ 등 대외여건 개선과 정부의 국채 발행규모 확대 우려 등의 영향으로 11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84%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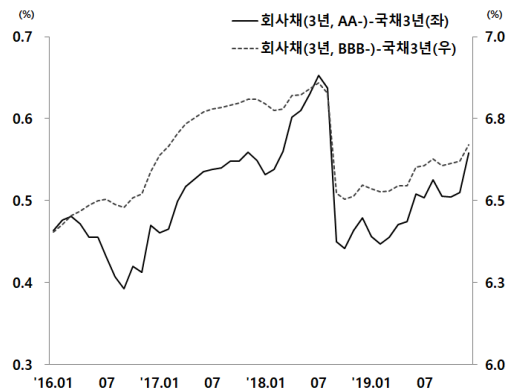
○ 최근 업황 부진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및 예상부도 확률 등의 움직임에 따라 신용등급의 하향 압력이 높아져 신용스프레드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¹⁵⁾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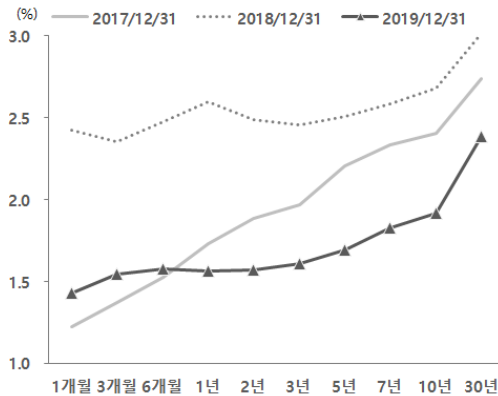
14) 12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 상승(51.6 → 52.2), 12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 예비치 상승(51.9 → 52.4), 11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폭 확대(4.7% → 6.2%, yoy), 소매판매 증가폭 확대(7.2% → 8.0%, yoy) ; 케이프투자증권(2019. 12. 17), 「국내외 경제이슈」

15) 한국은행(2019. 12. 26),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일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축소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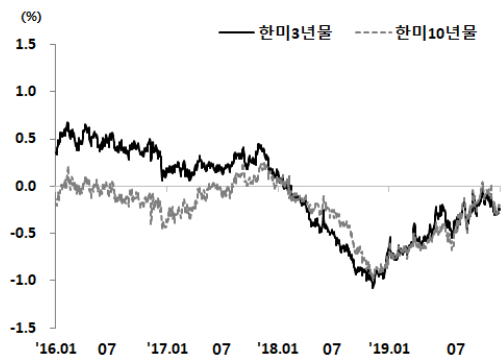
-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18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어 경기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3년 이하 단기물은 소폭 하락하고 10년 이상 장기물은 상승함
- '19년 11월 실업률은 3.5%로 '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8.2%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¹⁶⁾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년 1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분기보다 상향 조정함

- 2020년 1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82%,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78%, 1.47%로, 지난 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금리		국내 국채(10년) 금리		국내 국채(3년) 금리	
'19. 4Q	'20. 1Q	'19. 4Q	'20. 1Q	'19. 4Q	'20. 1Q
1.79	1.82	1.66	1.78	1.41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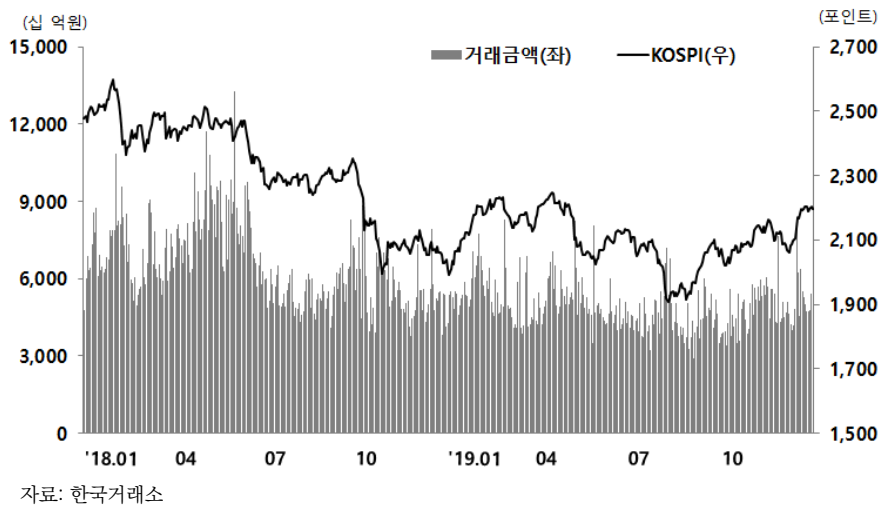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2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16) 미국 상무부(<https://www.census.gov>)

나. 주가

- 4/4분기 코스피(KOSPI)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국내 기업실적 회복 기대감¹⁷⁾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0~2,215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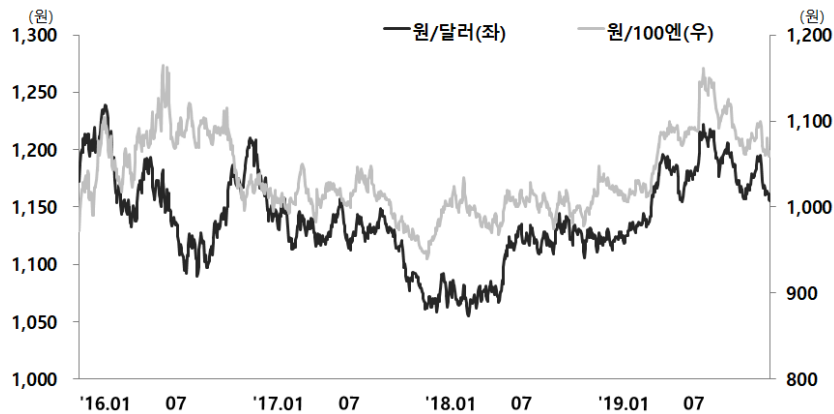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진행 양상, 홍콩 대규모 시위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150~1,210원 사이에서 움직임
 - 브렉시트 기한 연기,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어 11월 원/달러 환율은 1,150원까지 하락함
 - 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이 환율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율 변동폭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14년부터 '18년까지 환율의 연저점과 연고점의 차이는 평균 150원인 데 반해, '19년에는 109원으로 축소됨

17) '20년 기업이익증가율 전망치(반도체) 39.7%(9월) → 43.7%(10월) → 48.1%(11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9. 12), 「금융시장브리프」

■ 세계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60원을 하단으로 등락을 반복함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세하며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년 1분기에 원/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 엔/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9. 4Q	'20. 1Q	'19. 4Q	'20. 1Q	'19. 4Q	'20. 1Q
Standard Chartered	1,176	1,180	109	104	1,11	1.14
JP Morgan Chase		1,165		109		1.12
Barclays		1,180		107		1.10
Citi group		1,225		105		1.10
Morgan Stanley		1,135		108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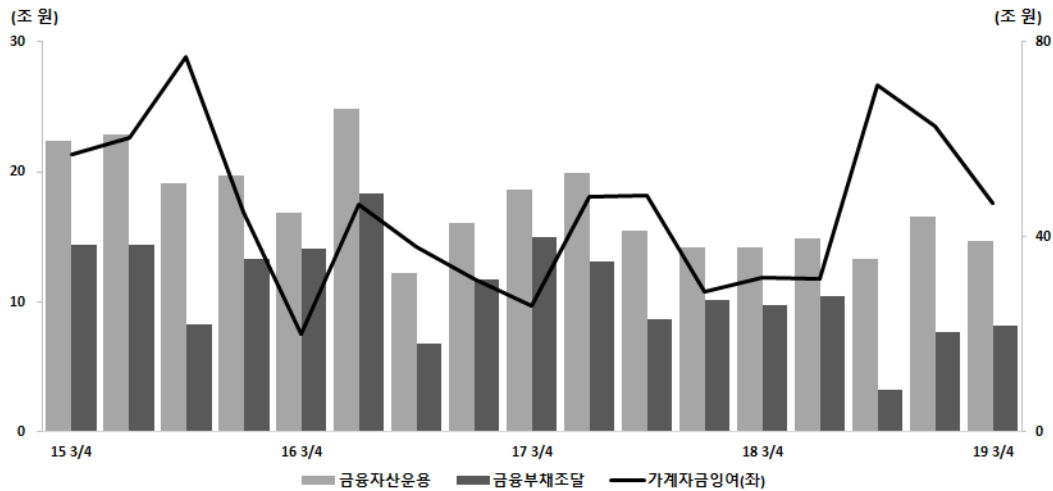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자금흐름

■ 2019년 3/4분기 가계부문¹⁸⁾의 자금잉여¹⁹⁾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함

○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부채 증가폭이 제한되었으나, 금융자산 거래도 감소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4분기 25.7%를 기록함

○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9년 들어 현금 및 예금 거래 비중이 높아짐

18)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9)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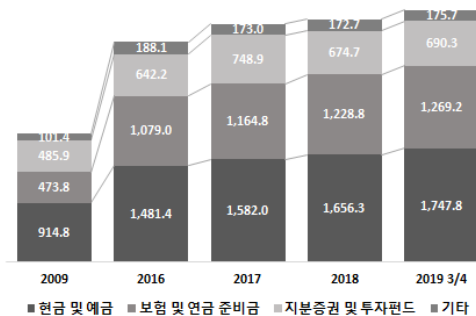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4	38.4	13.9	(39.3)	-8.8	-4.9	0.3	1.8	-5.3	35.4
2019 2/4	25.7	14.0	(31.7)	-1.7	-1.2	0.6	4.6	2.1	44.1
2019 3/4	28.1	10.1	(25.7)	0.7	0.5	0.6	-1.2	0.4	39.3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9년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2018년에 비해 0.2%p 감소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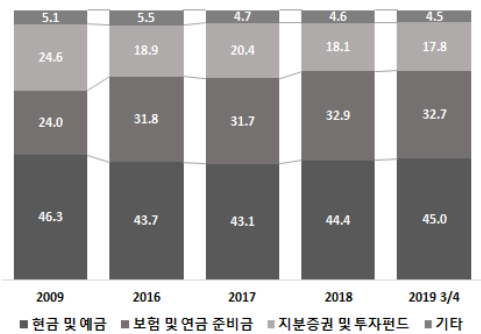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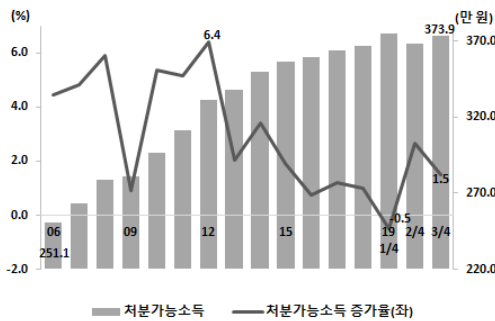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2/4분기 2.7%로 반등하였다가 3/4분기 1.5%를 기록하며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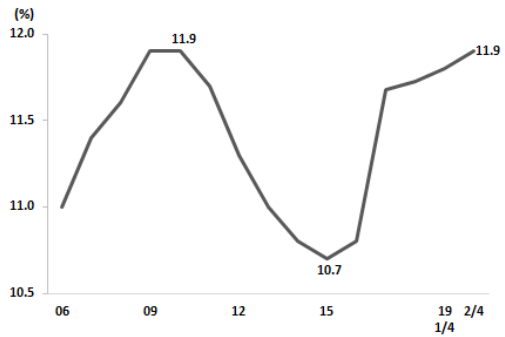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2/4분기 11.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019. 12. 26 금융위원회)

- 20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 및 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중 개정하고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함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019. 12. 18 금융위원회)

-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전화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변경,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 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 등을 개선함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2019. 12. 11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 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2019. 12. 5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12월 8일부터 연장 및 시행함

■ 외국 보험감독당국과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 강화(2019. 11. 14 금융위원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1월14일 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함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2019. 11. 7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운영,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일괄 확인하여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함

■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2019. 11. 6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보험 및 은행업계가 가상계좌로 실제 보험료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함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2019. 10. 28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2019. 10. 23 금융감독원)

- 2020년 상반기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 예정임

■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영향평가 관련,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2019. 10. 14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영향평가 결과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함

Ⅱ. 보험 동향

-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8년 둔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상승세를 나타냄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손해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다만, 최근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보험영업이 기여한 것보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기여한 바가 큰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 이며, 2019년 3/4분기에도 전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26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만기 보험금의 증가와 수입보험료 실적 둔화가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세의 주요인임
-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은 2018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상태임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 그러나 같은 기간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9.9%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와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24.6% 감소함
 - 생명보험은 신규 판매 부진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음
 -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2018년 103.0%에서 2019년 3/4분기 105.7%로 상승함
- 생명보험은 2019년 들어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됨
 - 손해보험은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있음

1.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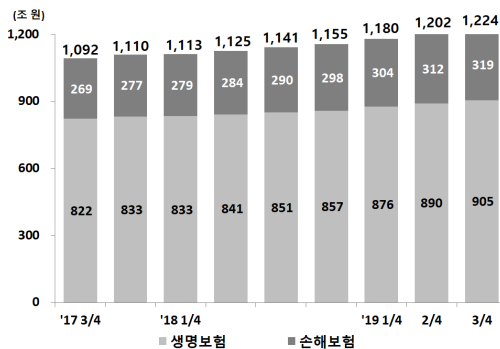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성장성〉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
 -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
-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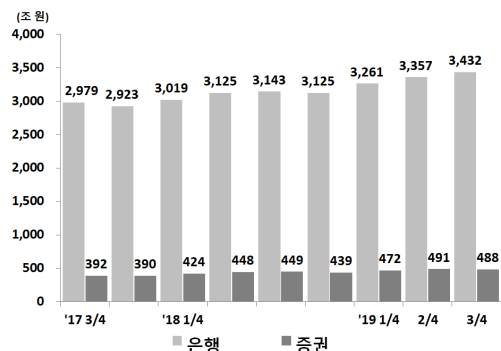
- 보험산업 총자산은 2019년 3/4분기 1,2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905조 원이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319조 원을 나타냄
 -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432조 원과 488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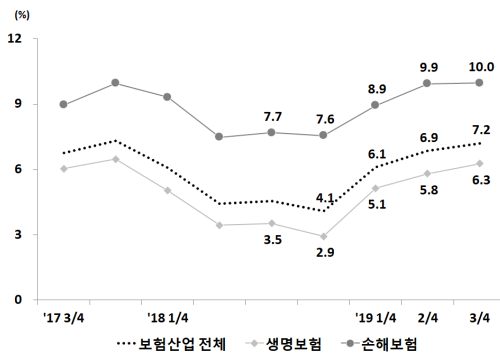
■ 2018년 말까지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19년 들어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함

-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의한 책임준비금 증가, 기타부채 증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 확대가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크게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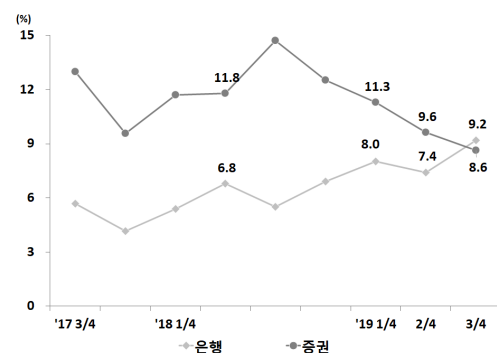
○ 한편, 은행의 자산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9.2%로 전분기 대비 1.8%p 상승하였으며, 증권 자산성장률은 8.6%로 전분기에 비하여 1.0%p 하락함

〈그림 3〉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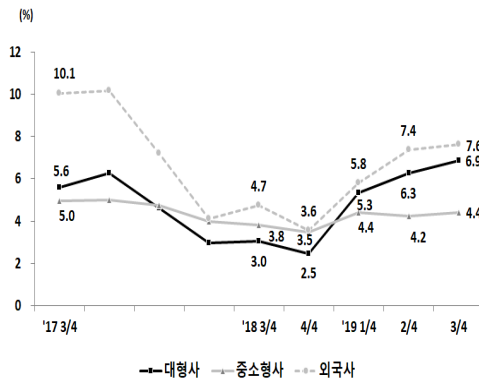
■ 2019년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이,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임¹⁾²⁾

○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들어 중소형사의 자산성장률이 대형사와 외국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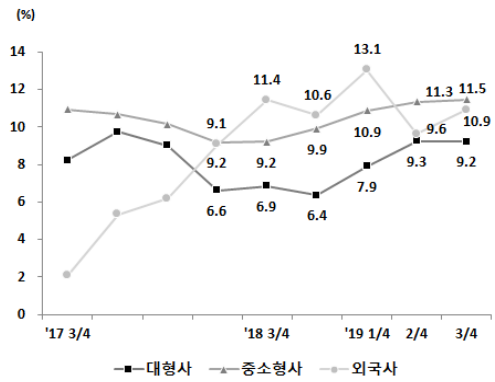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2019년 3/4분기 중소형사의 자산성장률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사가 10.9%, 대형사가 9.2% 순으로 나타남

1)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
2) 손해보험산업은 총 30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 9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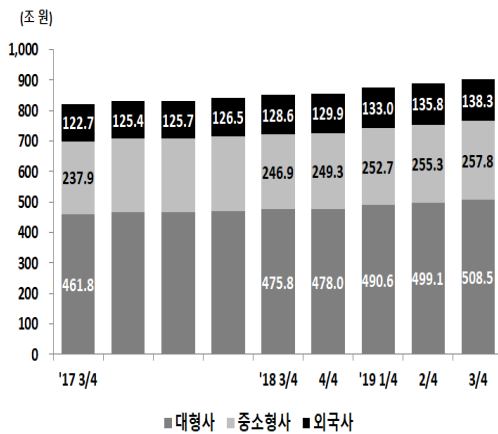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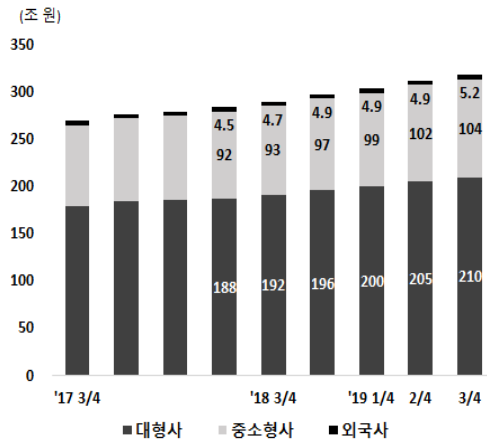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1)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2)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9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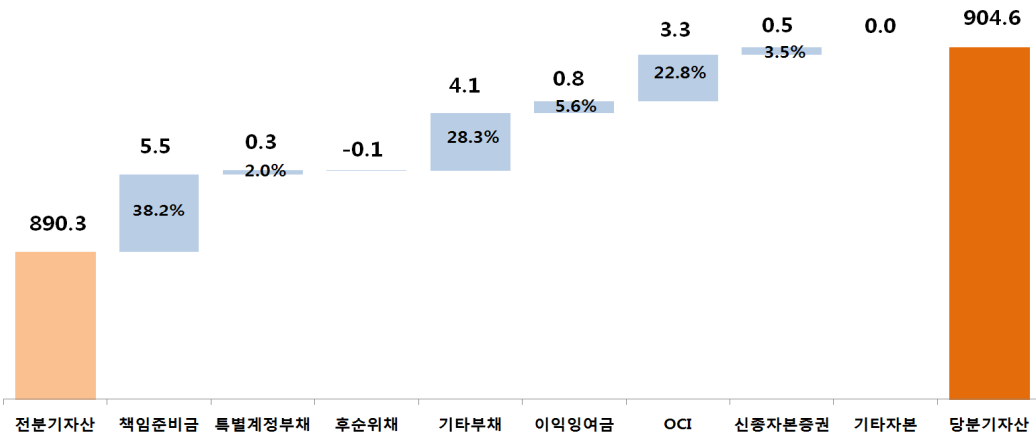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자산 성장에 책임준비금 증가, 기타부채 증가, 기타포괄 손익누계액(OCI) 증가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음

-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38.2% 자산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기타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28.3% 기여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하락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 성장에 22.8% 기여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와 부리이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및 '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

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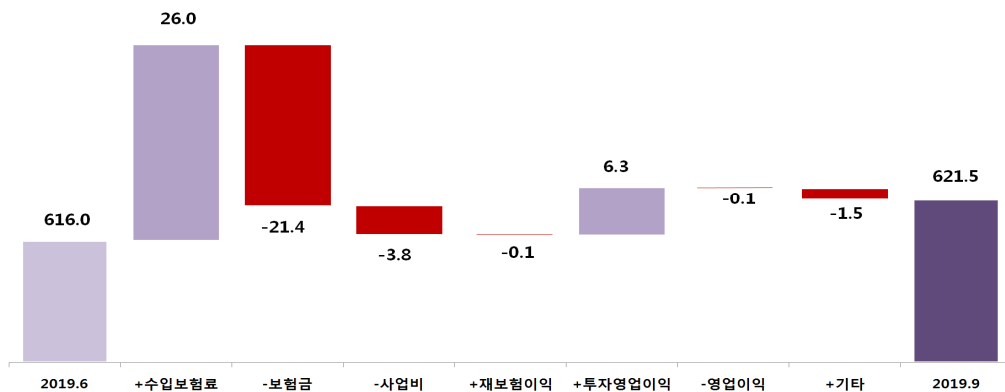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공시된 회계상의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대략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5조 4,828억 원 증가하였는데, 수입보험료가 보험금과 사업비³⁾ 지출액을 소폭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하였고, 투자영업이익도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
- 투자영업이익은 6조 3,429억 원 흑자를 기록하여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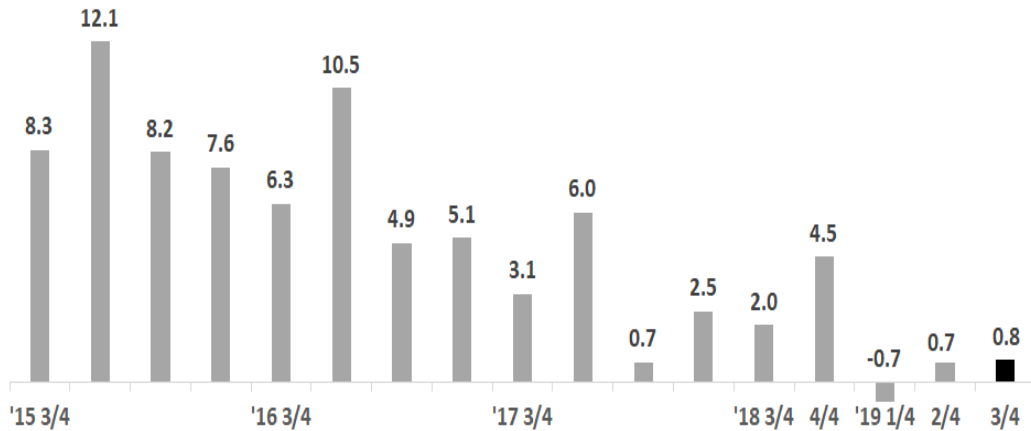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전전 사업비임

■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은 2019년 3/4분기 8,00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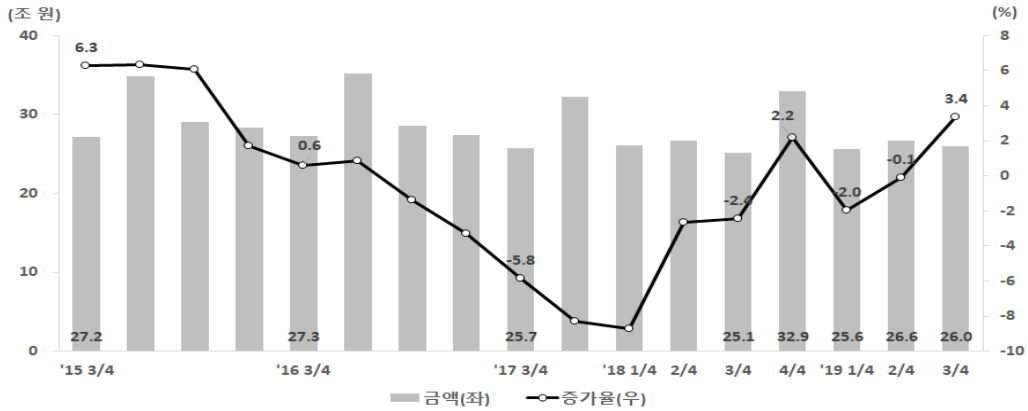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 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난 26.0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중·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로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이번 분기 수입보험료 성장에는 퇴직연금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며, 변동폭이 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수입보험료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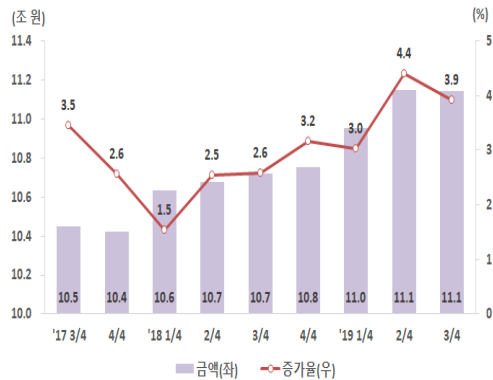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은 역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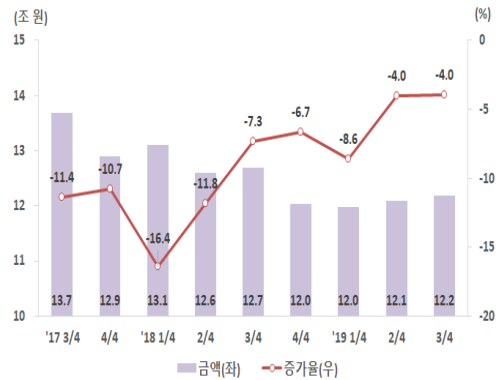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치매보험,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1.1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인한 판매실적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2.2조 원을 나타냄
- 퇴직연금은 일부 외국사의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한 2.5조 원을 나타냄
- 일반단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0.17조 원을 기록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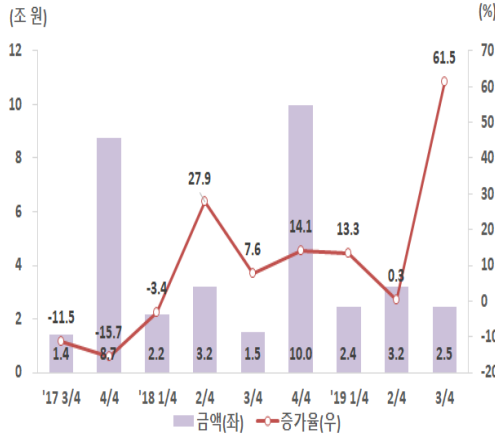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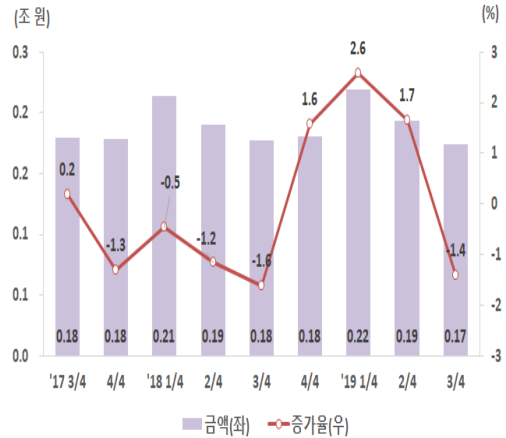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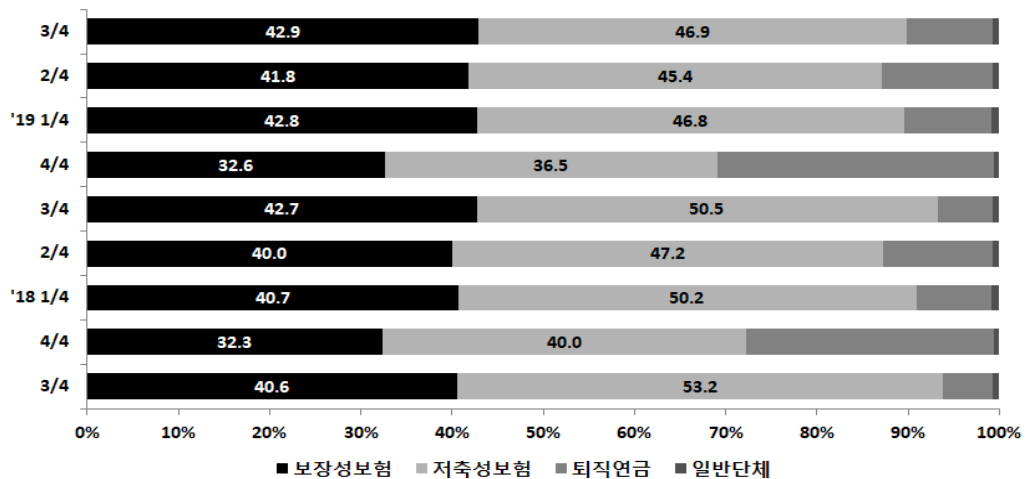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저축성보험 감소세로 인하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8년 3/4분기 53.2%에서 2019년 3/4분기 46.9%로 축소됨
- 반면,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40.6%에서 42.9%로 확대됨

〈그림 1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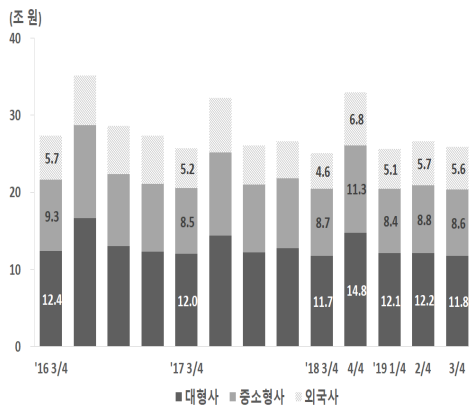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19년 3/4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저성장세가 계속된 반면,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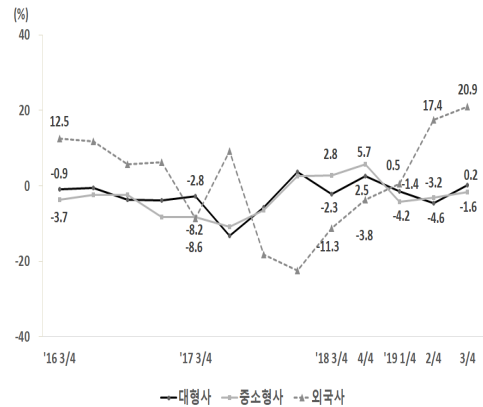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저성장은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 때문임
- 최근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증가는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및 중·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기인함

〈그림 1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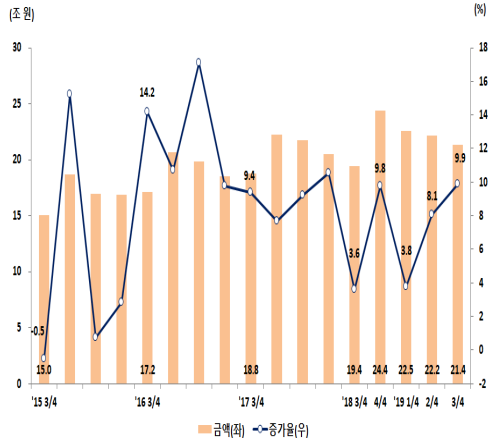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19년 들어 생명보험 보험금과 사업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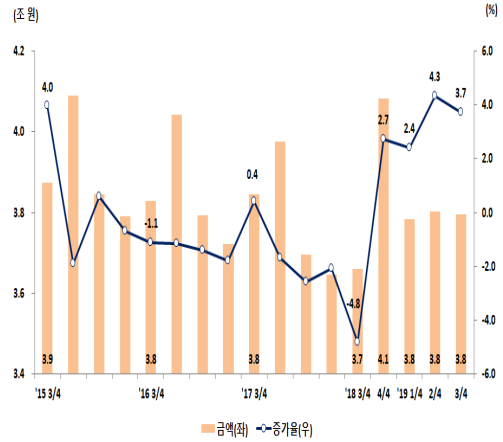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만기 지급이 늘어나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함
- 생명보험산업의 사업비는 2015년 이후 신규 판매가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기저효과와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그림 20〉 보험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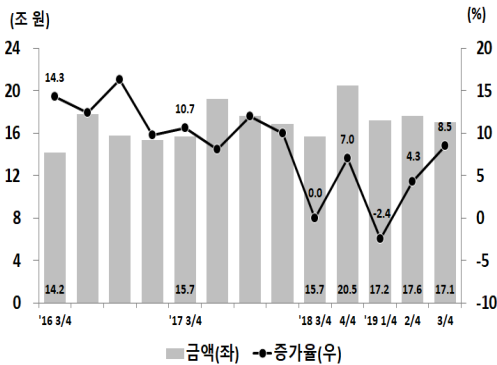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은 배당금을 제외한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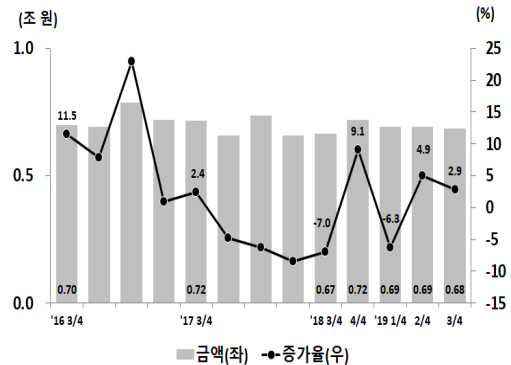
○ 특히, 저축성보험 만기 보험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의 보험영업현금 흐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22〉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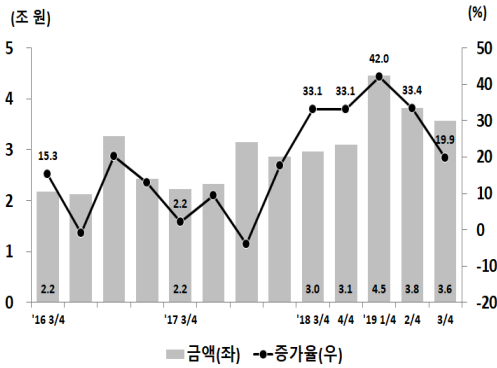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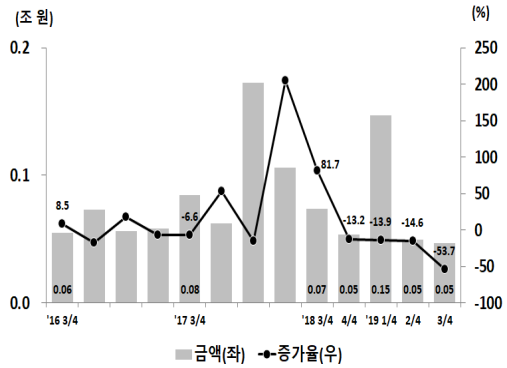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4〉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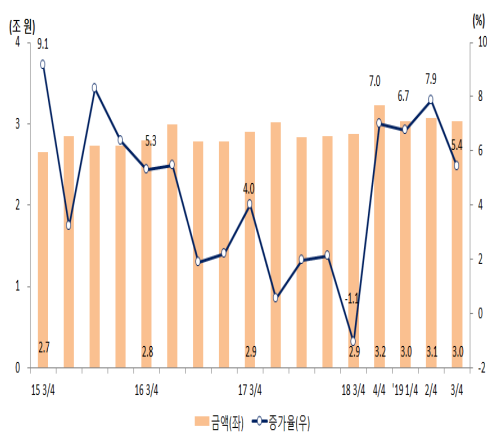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 판매 둔화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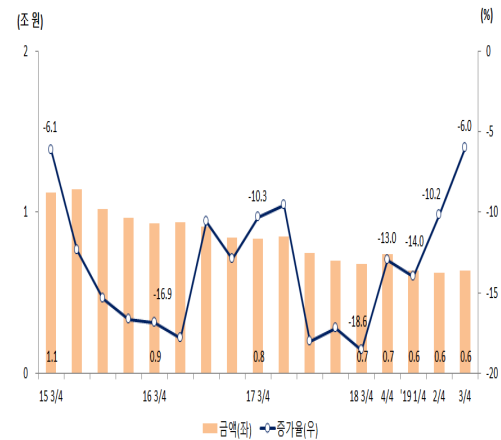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소폭의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인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함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0.6조 원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사업비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음

〈그림 26〉 보장성보험 사업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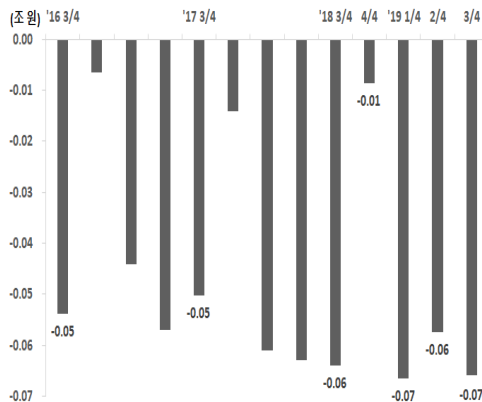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7조 원 적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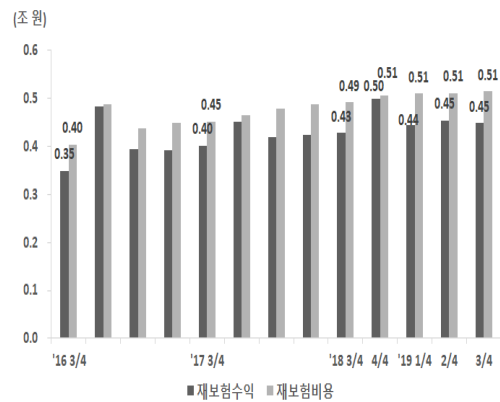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45조 원과 0.51조 원을 기록함

〈그림 28〉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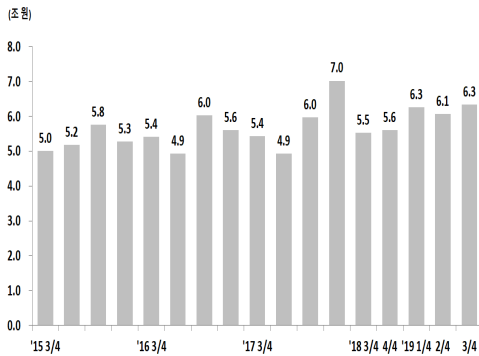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6.3조 원과 1,234억 원 흑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 및 평가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0.8조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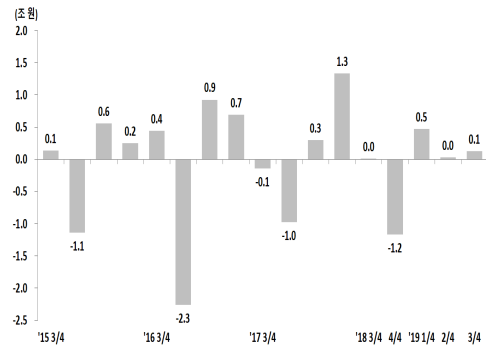
○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2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저축성보험 만기도래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30〉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생명보험산업의 후순위채 규모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9년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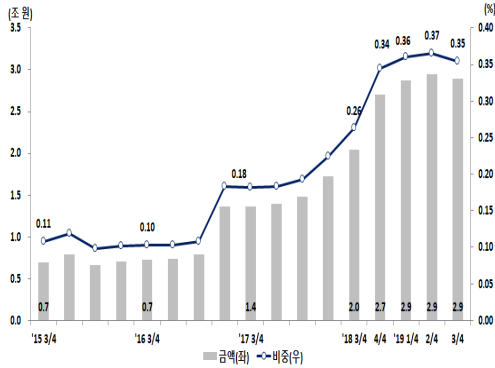
-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가 2015년 2/4분기 0.7조 원에서 2019년 3/4분기 2.9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1%에서 0.35%로 확대됨
- 자본 확충을 위하여 RBC비율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기타부채⁴⁾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확대되고 있음

-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분기 3.29%에서 2019년 3/4분기 4.7%로 확대됨
- 이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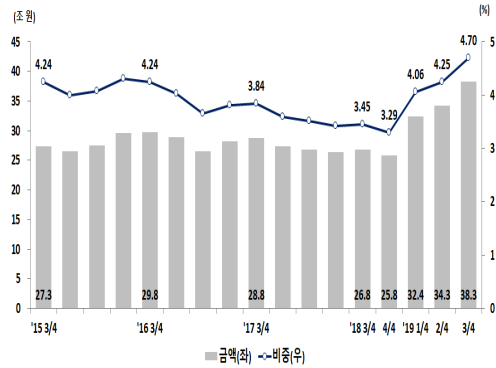
4)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32〉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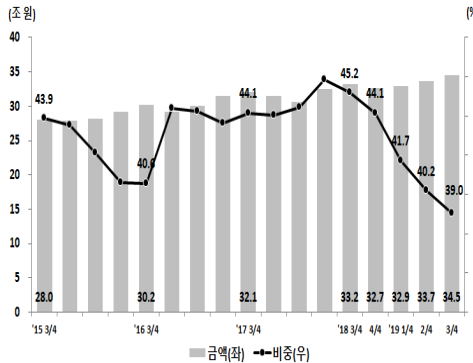
3) 생명보험 자본

■ 생명보험산업의 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된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는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채권평가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편, 2019년 3/4분기 신종자본증권은 전분기에 비하여 0.5조 원 증가한 3.5조 원으로 총자본에서 4.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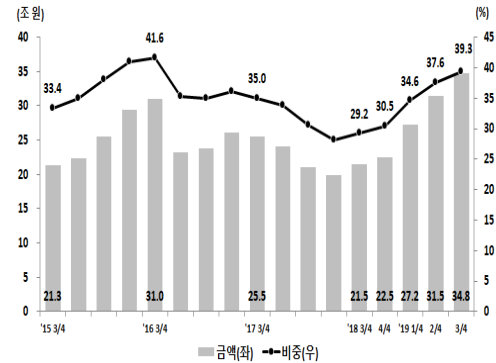
- 한화생명은 2019년 7월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 5,000억 원 규모(발행금리: 3.69%)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함

〈그림 34〉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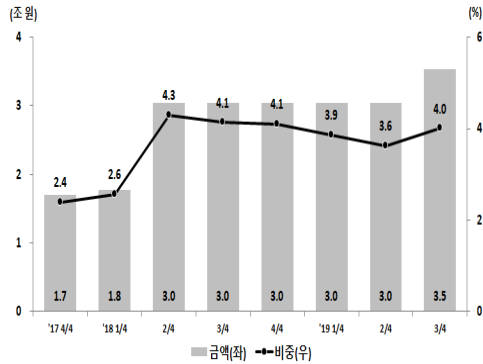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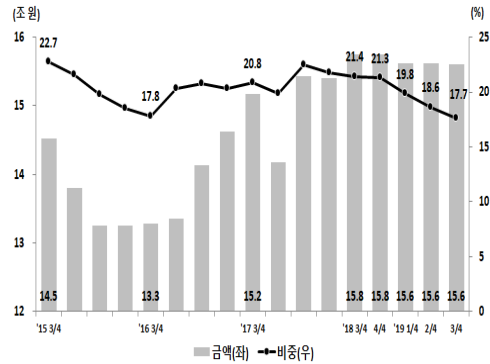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6〉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기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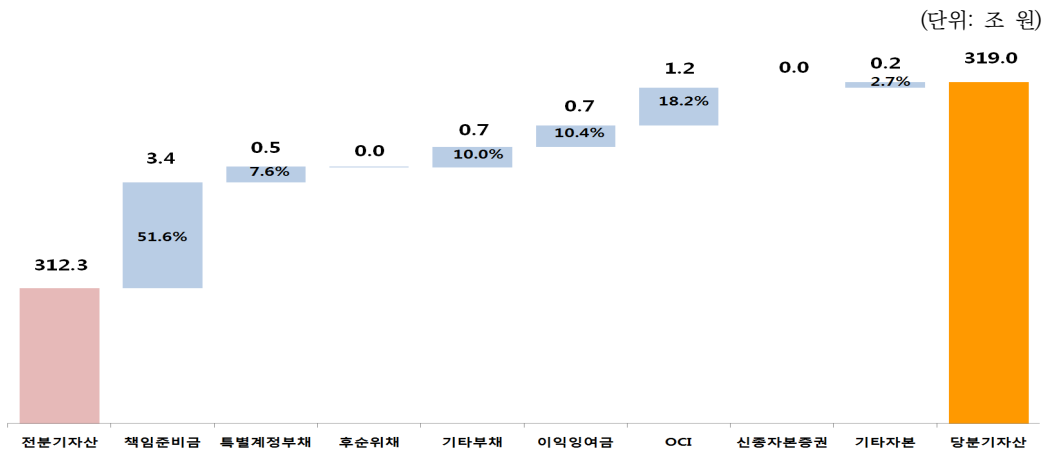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6조 6,443억 원 증가하였는데, 책임준비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
- 책임준비금 증감이 51.6%로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각각 18.2%와 10.4% 기여함

〈그림 38〉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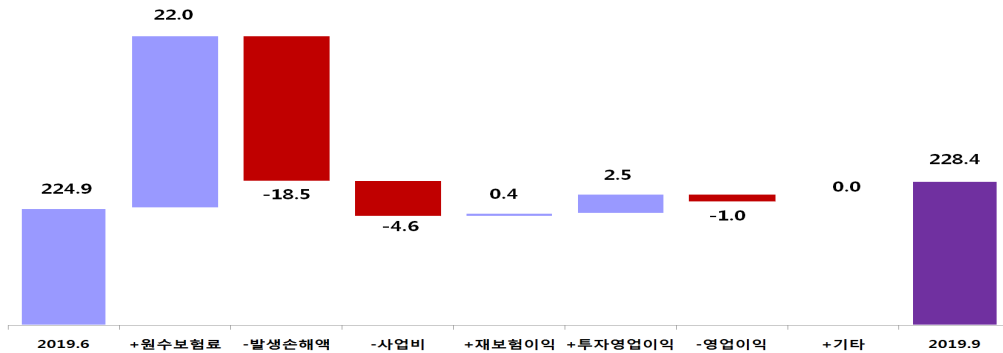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3조 4,272억 원 증가하였는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⁵⁾ 지출이 원수보험료를 1조 996억 원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킴

〈그림 39〉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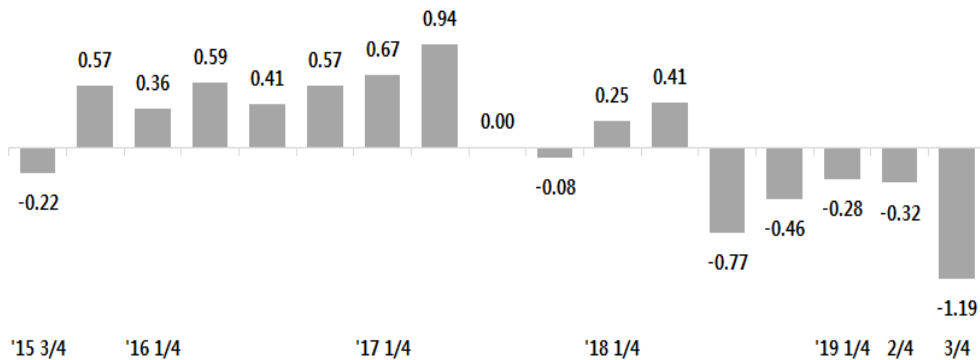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은 2018년 3/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심화됨

〈그림 40〉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전 사업비임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22.0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 경쟁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3.4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4.4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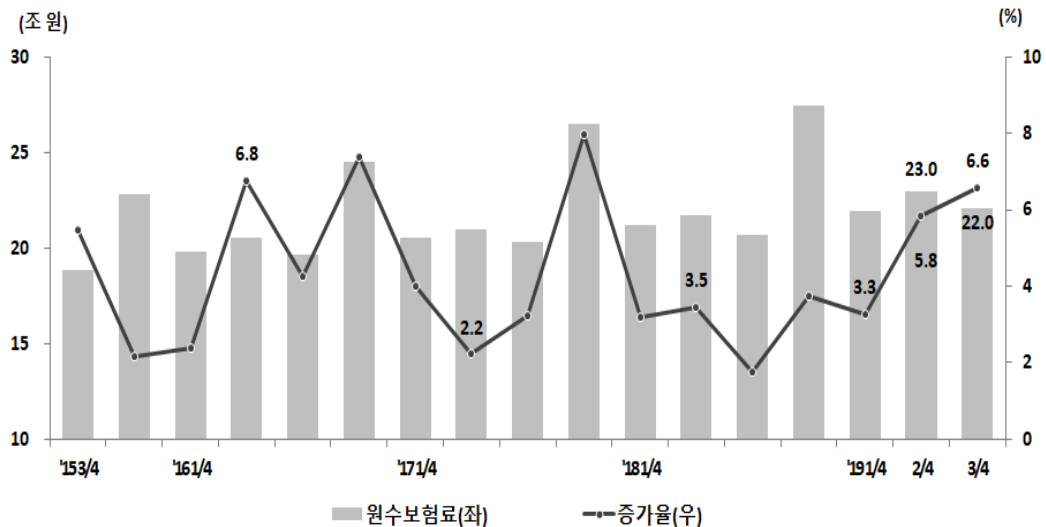
-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2018년 4/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3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0.8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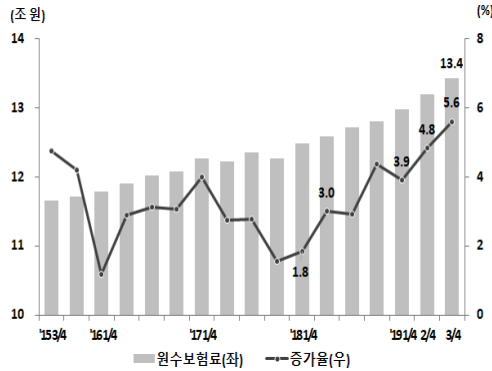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1.2조 원을 나타냄

〈그림 41〉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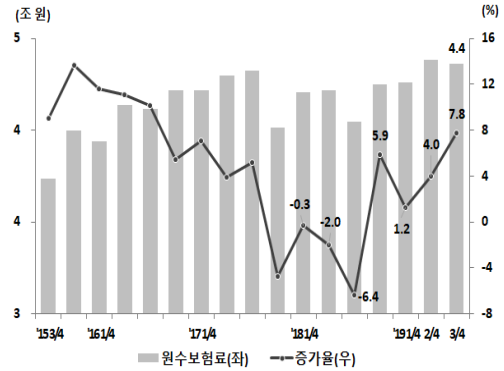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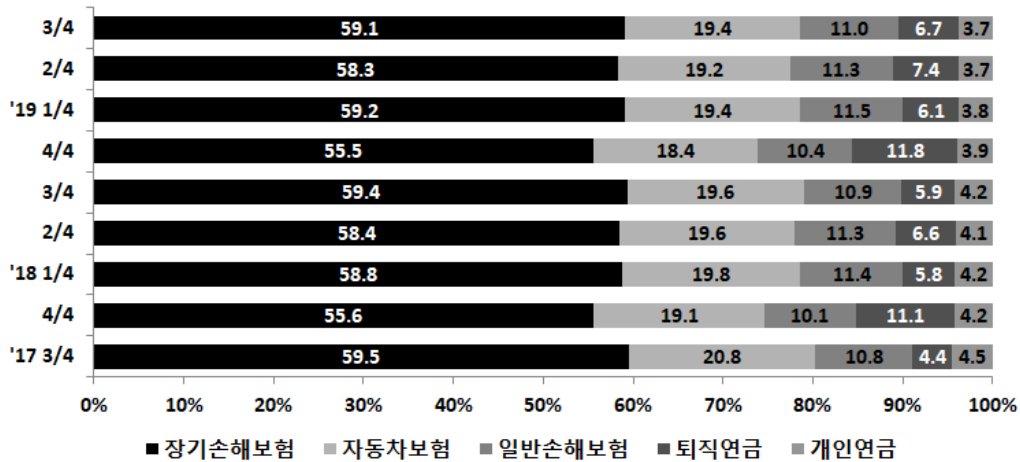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3〉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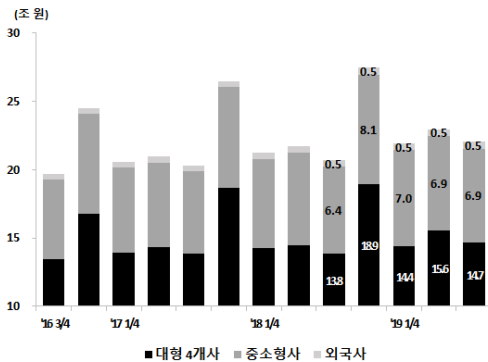
〈그림 47〉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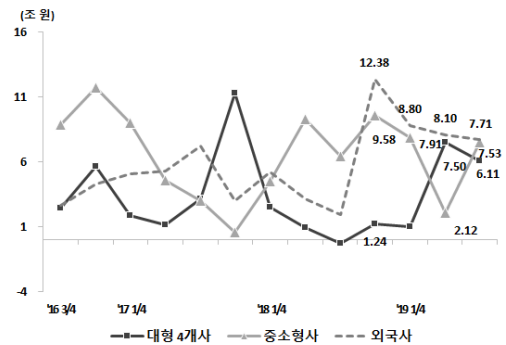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19년 3/4분기 중소형사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2019년 3/4분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6.11%, 7.53%, 7.71%임

〈그림 4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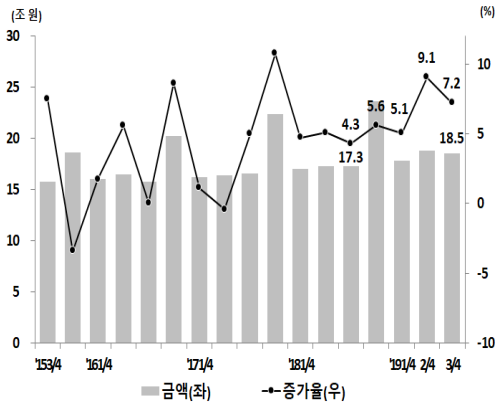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9.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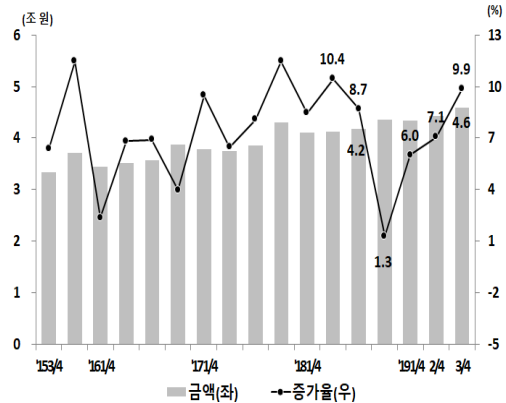
-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이 증가하였으며, 장기 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보험사고 증가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액이 늘어남
- 사업비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사업비는 저금리로 인한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도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에 따른 온라인보험 판매 증가로 감소세를 나타냄

〈그림 50〉 발생손해액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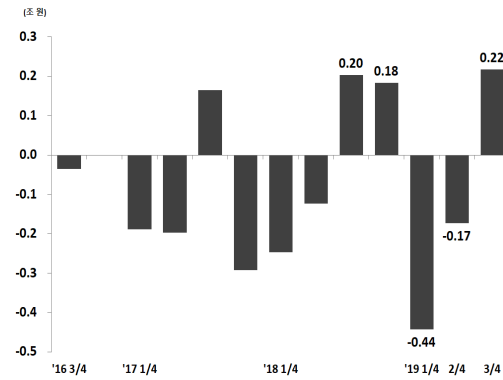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22조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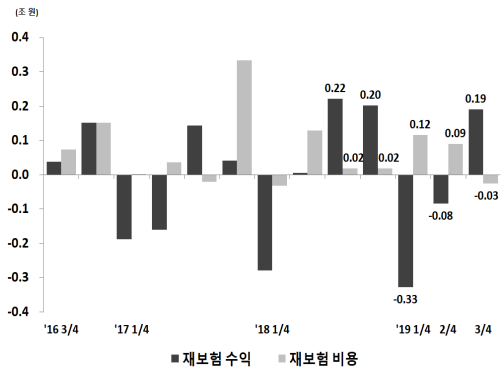
- 이는 재보험 수익이 증가하고 재보험 비용도 수재보험금 감소로 인해 축소되었기 때문임

〈그림 52〉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3〉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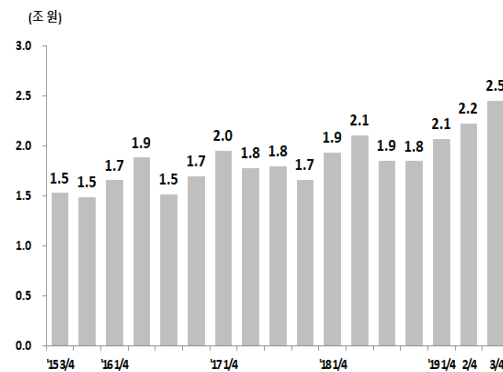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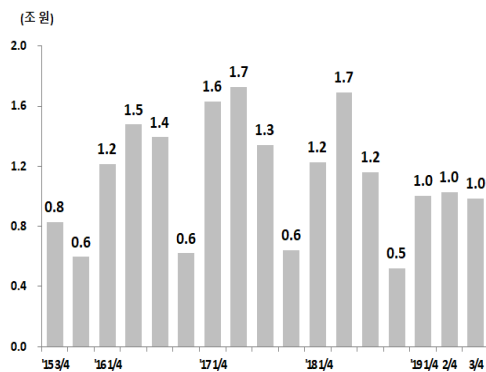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 이익과 이자 및 배당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손해율 상승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감소함

〈그림 54〉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5〉 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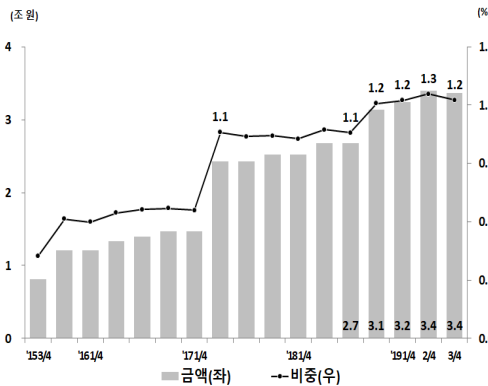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손해보험산업 총부채 가운데 기타부채⁶⁾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에 비하여 확대됨

○ 2019년 3/4분기 기타부채는 전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한 17.3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로 전분기보다 0.2%p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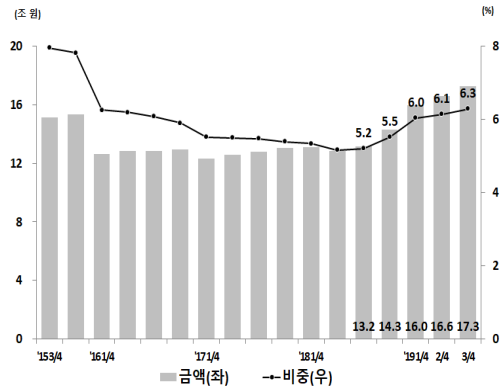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전분기와 유사한 3.4조 원을,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에
비하여 0.1%p 축소된 1.2%를 기록함

〈그림 56〉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7〉 기타부채



주: 1)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
2)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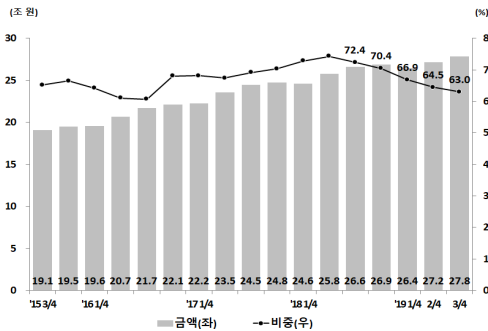
3) 손해보험 자본

■ 손해보험산업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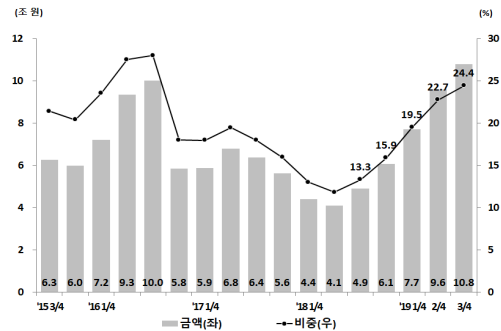
6)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5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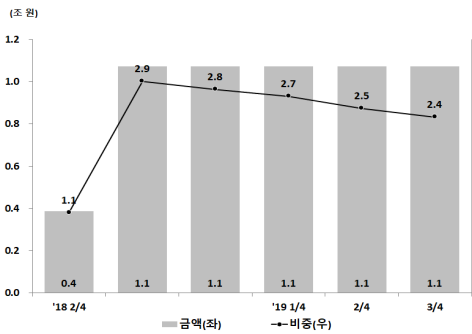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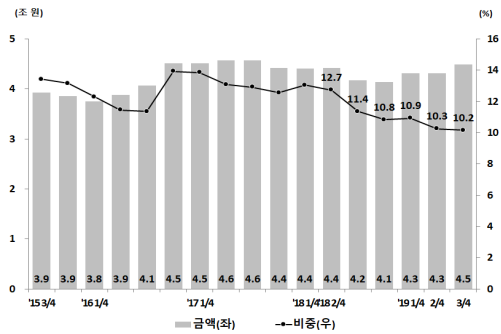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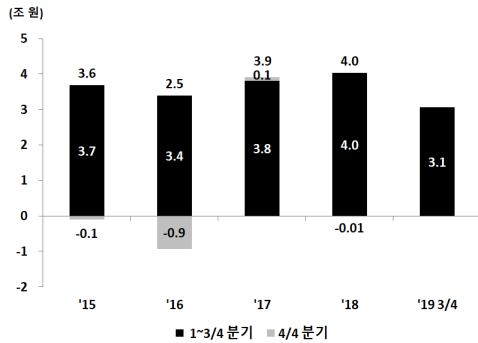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19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2019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한 3.1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만기도래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로 보험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변액보험 판매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입 축소로 영업외이익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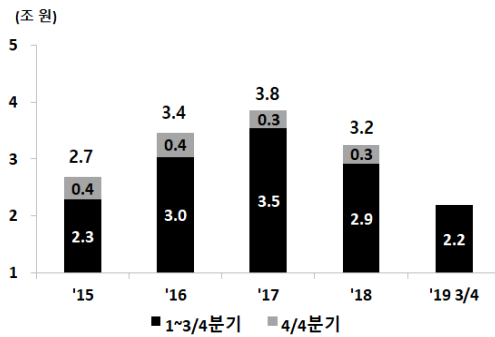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의 처분 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주식 처분 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됨
- 2019년 3/4분기 누적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한 2.2조 원 흑자를 기록함
- 판매경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손해율 확대 등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영업손실은 크게 증가함
- 다만,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의 처분이익이 증가하고 운용자산 증가로 이자수익과 배당 수익이 증가하여 투자영업이익은 확대됨

〈그림 6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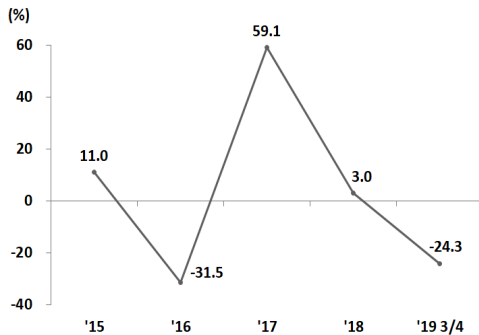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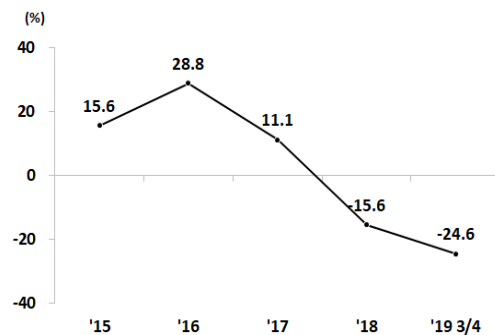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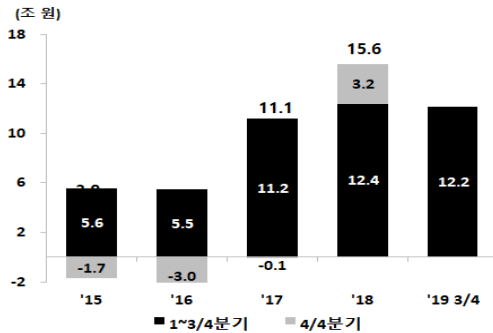
〈그림 6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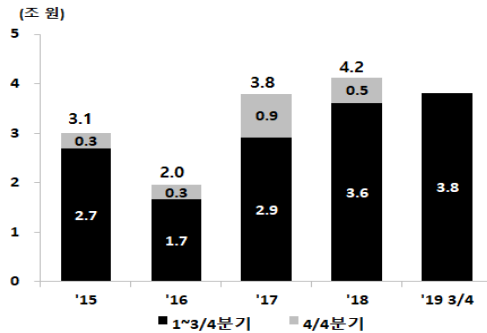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누적 은행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2.2조 원을, 증권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8조 원을 나타냄

〈그림 66〉 은행 당기순이익



주: 1)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2)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67〉 증권 당기순이익



주: 노무라, 다이와, 리딩,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 기간을 맞춤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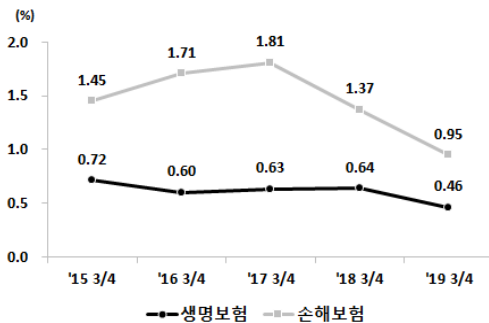
나. ROA, ROE

■ 2019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 모두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46%로 전년 동기보다 0.18%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95%로 전년 동기보다 0.42%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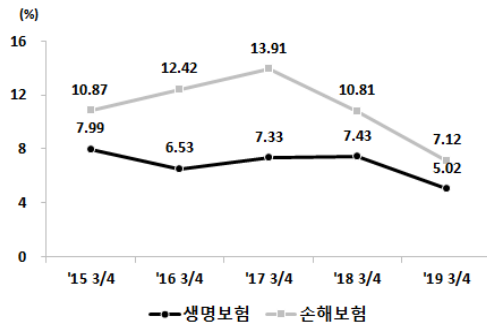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2.41%p 하락한 5.02%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3.69%p 하락한 7.12%를 나타냄

〈그림 68〉 보험산업 ROA



주: ROA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보험산업 ROE



주: ROE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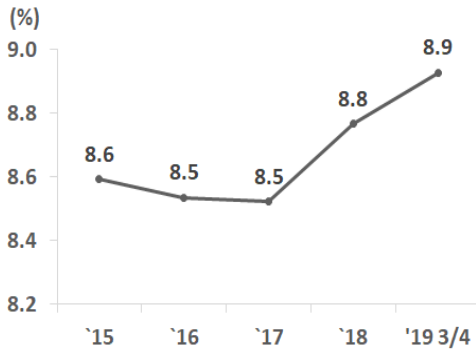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2019년 들어 생명보험산업의 신규 판매 부진,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보험금 지급률이 모두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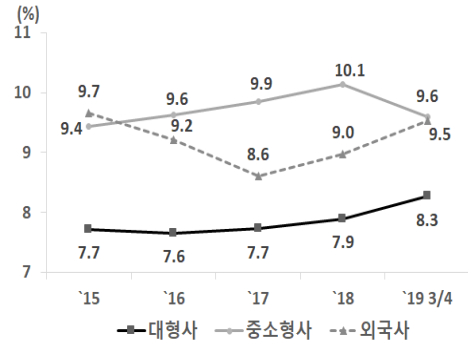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누적 해지율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해지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대비 0.1%p 상승한 8.9%를 기록함
- 2019년 3/4분기 누적 사업비율은 2018년 대비 1.0%p 상승한 14.6%를 나타냈으며, 이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사업비가 소폭 증가한 데다 수입보험료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수입보험료는 감소함에 따라 2016년 59.8%에서 2019년 3/4분기 84.5%까지 상승함
-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2019년 3/4분기 누적 사업비가 2018년에 비하여 상승세를 보였음

〈그림 70〉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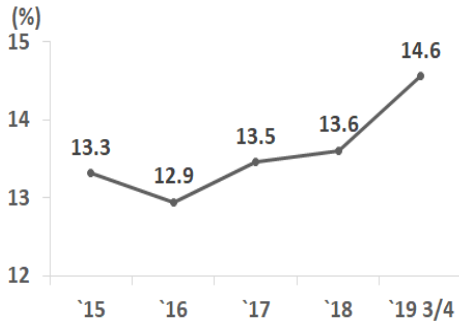
주: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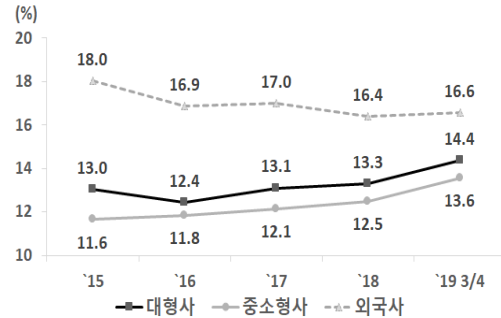
주: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2〉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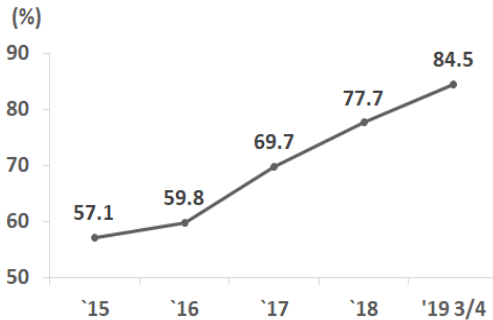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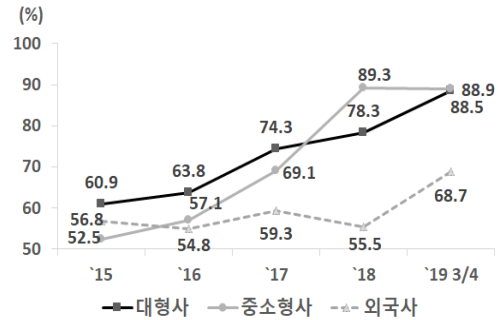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4〉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악화됨(2018년: 103.0% → 2019년 3/4분기(누적): 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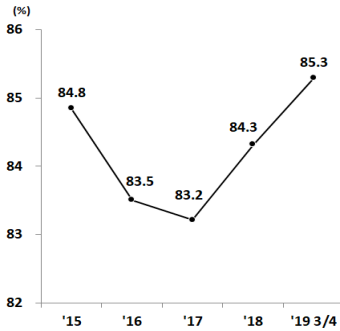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2018년 말보다 1.0%p 상승한 85.3%를 나타냄

- 2019년 3/4분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정비수가 인상 및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등에 따른 보험금 원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3.0%p 악화된 89.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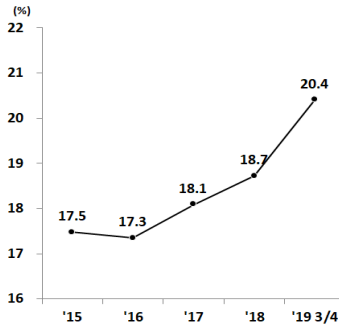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누적 사업비율은 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경쟁 확대로 2018년 말보다 1.7%p 상승한 20.4%를 나타냄

- 2019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누적 사업비율은 전년 말 대비 1.5%p 상승한 24.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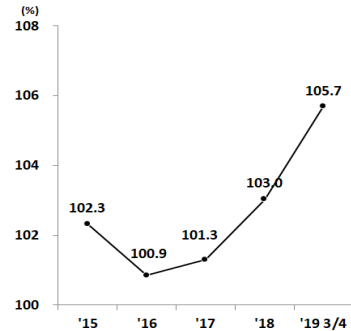
〈그림 76〉 손해보험 손해율



〈그림 77〉 손해보험 사업비율



〈그림 78〉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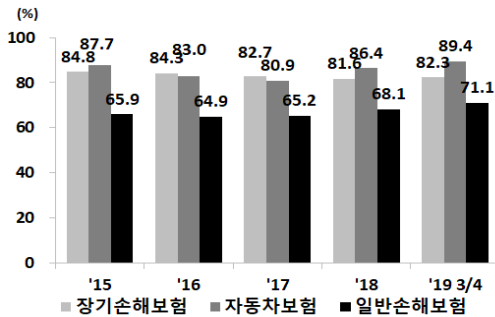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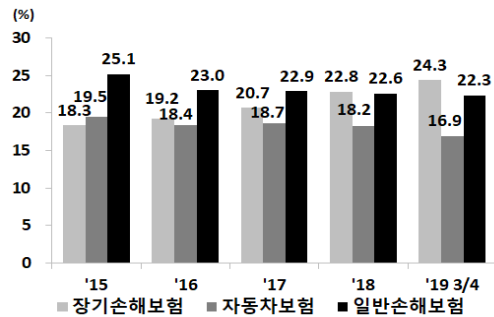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9〉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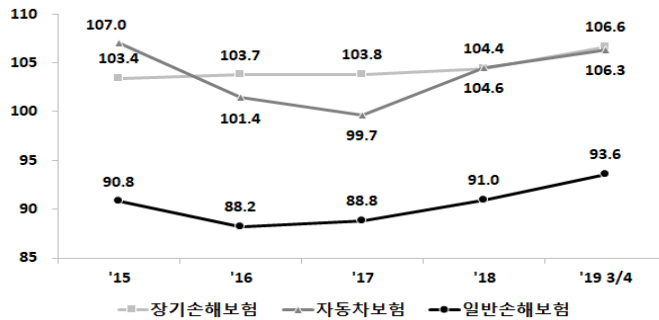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0〉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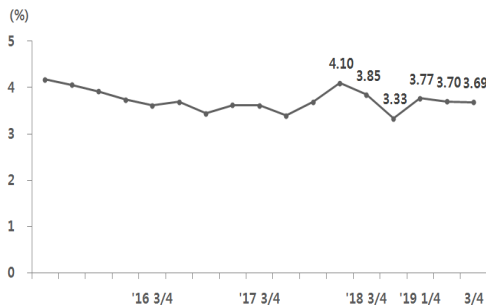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19년 들어 채권 처분 이익 확대에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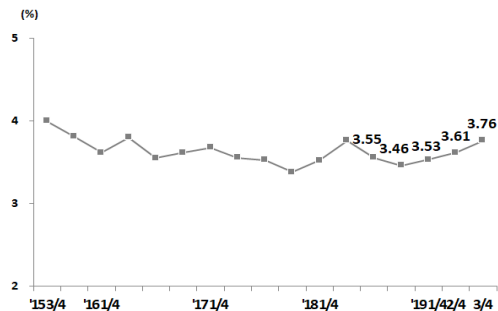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16%p 하락한 3.69%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도 주식 처분 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있음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21%p 상승한 3.76%를 나타냄

〈그림 82〉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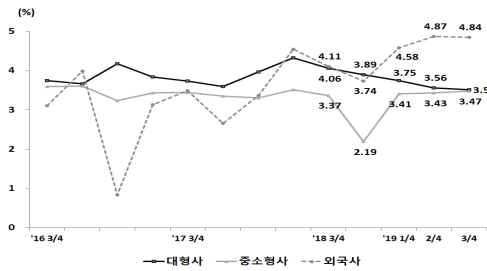
〈그림 83〉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최근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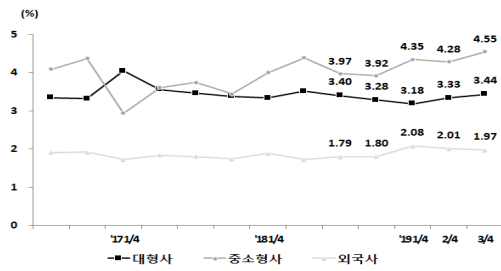
〈그림 8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 연 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 연 기준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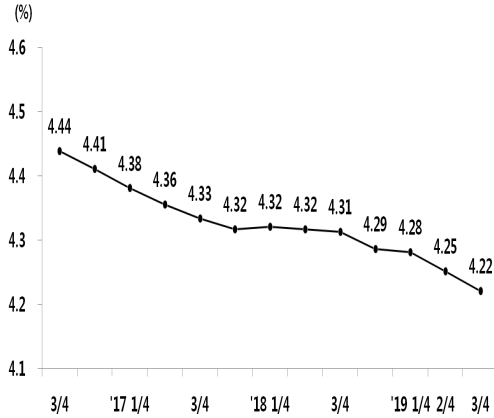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2018년 4/4분기 4.29%에서 2019년 3/4분기 4.22%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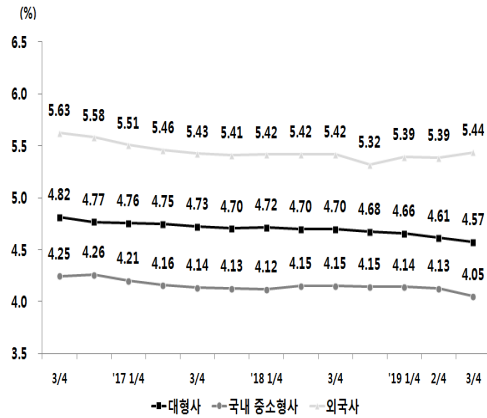
- 최근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4% 초반으로, 3% 중후반의 생명보험 운용 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외국사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립금의 평균 금리가 높은 수준임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마. 이익구성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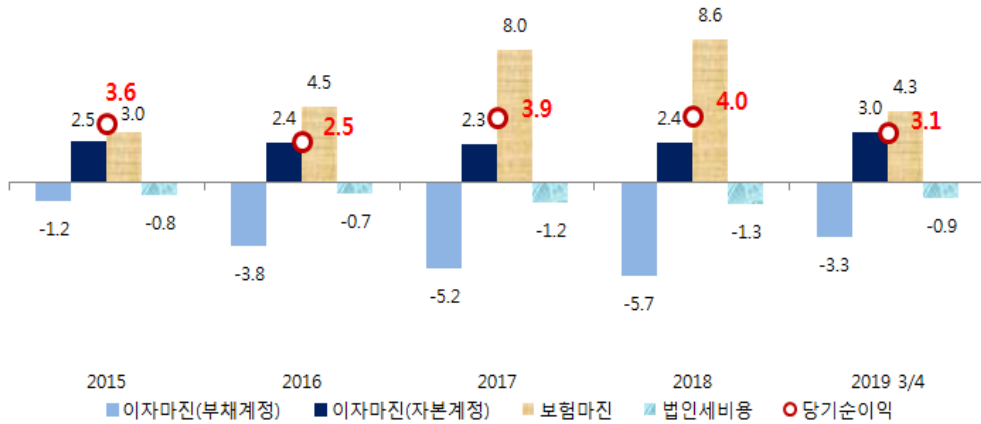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부채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은 이자역마진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환경에 취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부채계정의 이자역마진 규모를 자본계정의 이자마진과 보험마진이 보전하는 형태로 구성됨

○ 2019년 3/4분기에는 자본계정의 이자마진이 전년에 비하여 0.6조 원 증가하였으나, 보험마진은 전년에 비하여 4.3조 원 감소함

- 자본계정의 이자마진 증가는 운용자산이익률이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한 데다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확대로 자본 평균 잔액도 증가했기 때문임
- 보험마진의 감소는 수입보험료 실적 부진과 보험금 지급 증가 등에 기인함

〈그림 88〉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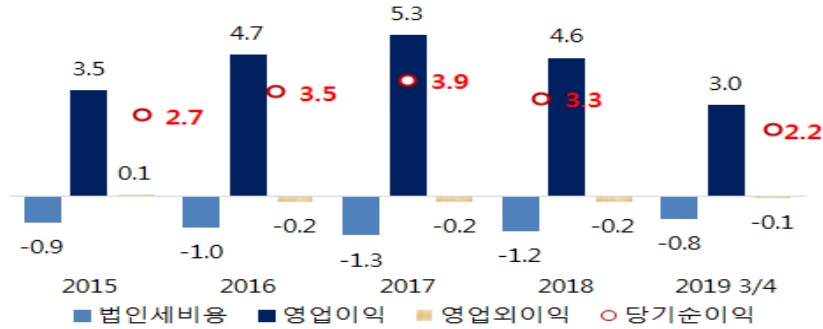
가) 당기순이익 구성

■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가운데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2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3.0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1조 원 적자를 기록함
- 다만, 2019년 3/4분기 영업이익 흑자규모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감소하였으나, 영업외이익 적자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축소됨

〈그림 89〉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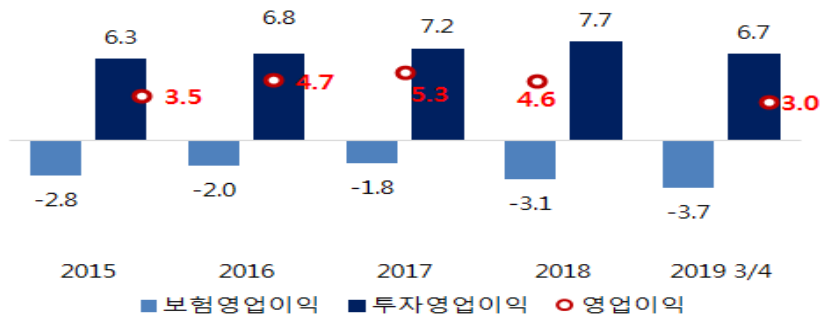
나) 영업이익 구성

■ 최근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투자영업이익 흑자가 보전하고 있음

- 2019년 3/4분기 영업이익은 3.0조 원이었으며, 보험영업이익은 3.7조 원 적자를, 투자영업이익은 6.7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19년 3/4분기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 흑자규모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하여 확대됨

〈그림 90〉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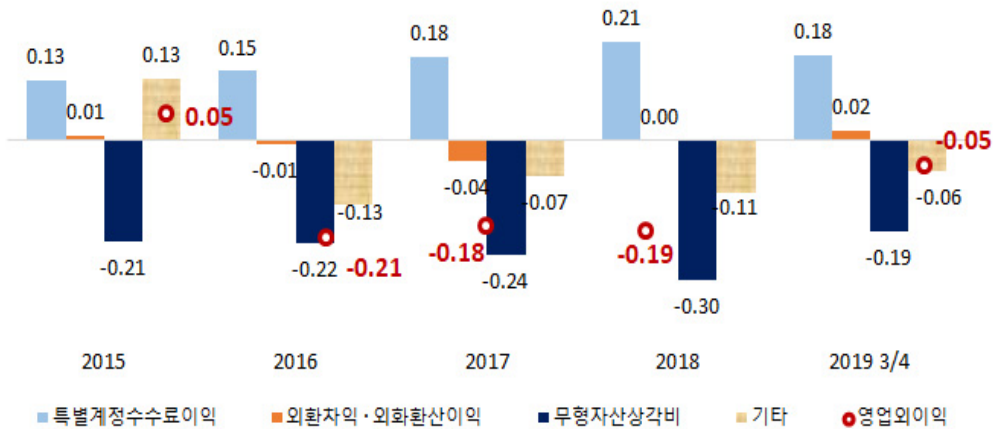
다) 영업외이익 구성

■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 중 특별계정 수수료 이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3/4분기 영업외이익은 0.05조 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별계정 수수료 이익은 0.18조 원, 무형자산상각비는 0.19조 원이었음

〈그림 91〉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

(단위: 조 원)



- 주: 1)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
 2)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
 3)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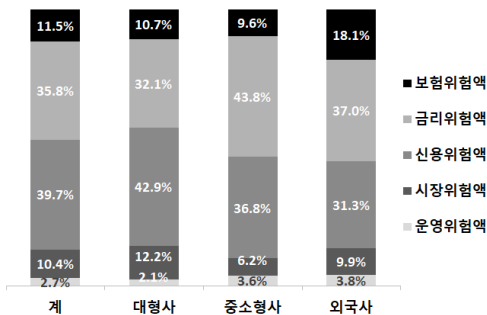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⁷⁾

■ 2019년 9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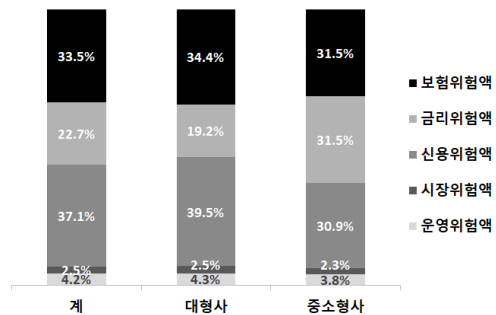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39.7%), 금리위험(35.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위험(37.1%), 보험위험(3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이, 손해보험회사의 중소형사는 보험위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9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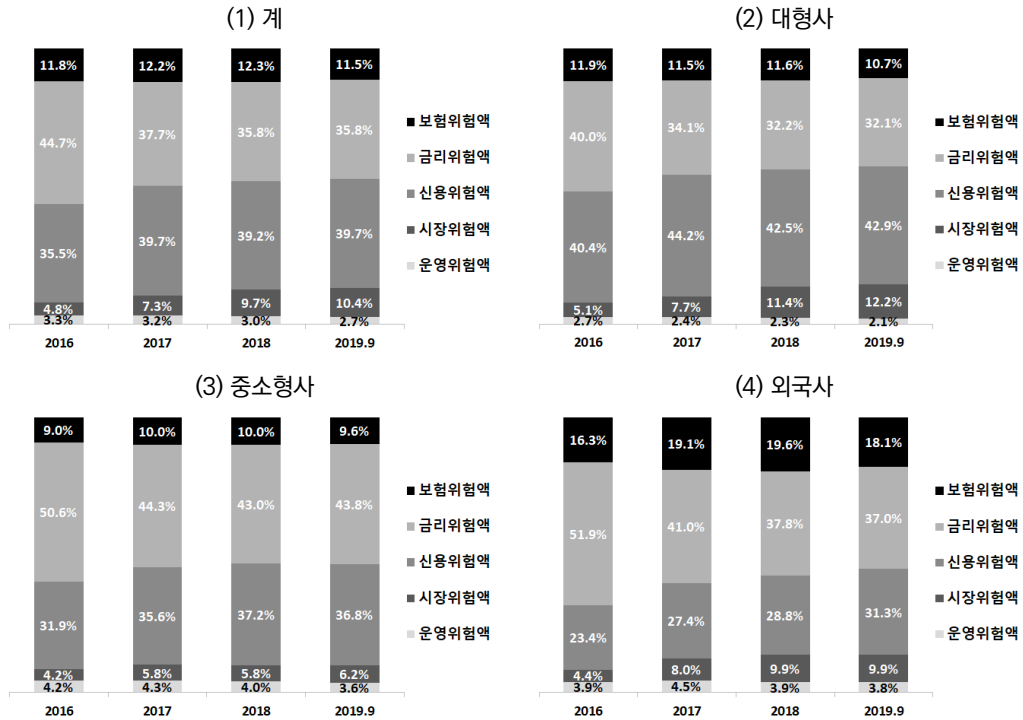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19년 9월 생명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의 비중은 각각 전년 말 대비 0.5%p, 0.7%p 증가한 반면, 보험위험과 운영위험의 비중은 각각 0.8%p, 0.3%p 감소함

-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말 대비 각각 0.4%p, 2.5%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0.4%p 감소함
- 금리위험 비중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는 43.8%로 2018년 말 대비 0.8%p 상승함

7)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 데이터를 제외한 보유 위험액을 중심으로 2019년 9월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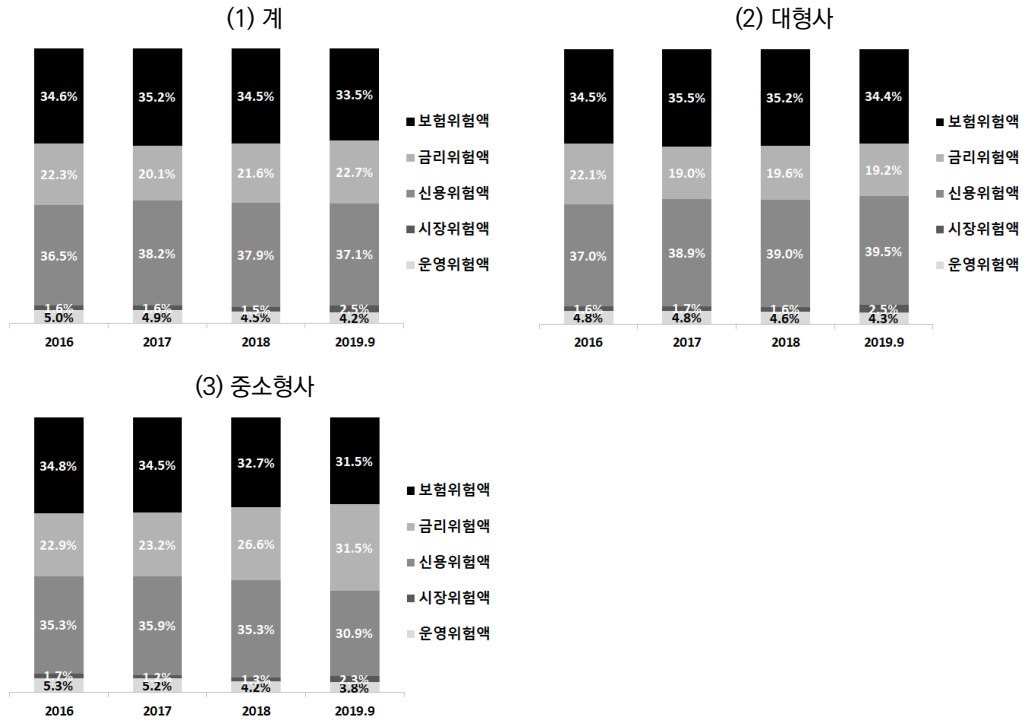
〈그림 9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19년 9월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1.1%p 증가한 반면, 보험위험과 신용위험 비중은 각각 1.0%p, 0.8%p 감소함
- 신용위험의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전년 말 대비 증가(0.5%p)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감소 (4.4%p)함

〈그림 95〉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리스크 세부 동향〉

- 리스크 관련 세부 데이터는 반기마다 공시되므로 보험리스크와 자산리스크의 세부 내용은 봄호와 가을호에 분석하여 게재함
 - 여름호와 겨울호는 전체적인 리스크 동향만 제시함

4. 시장경쟁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그룹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19년 들어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8년 3/4분기 18.7%에서 2019년 3/4분기 20.9%로 확대됨

○ 반면, 같은 기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p, 1.1%p 축소된 46.1%, 33.0%를 기록함

■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19년 들어 외국사의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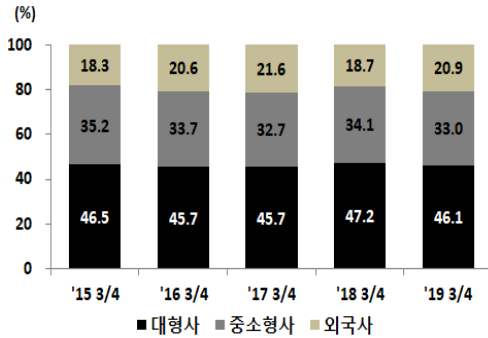
○ 이는 일부 외국사가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기 때문임

■ 2019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⁸⁾는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한 985를 나타냈으며,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하락한 881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의 허핀달 지수는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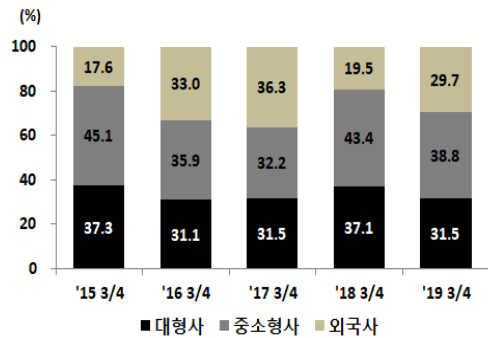
8)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9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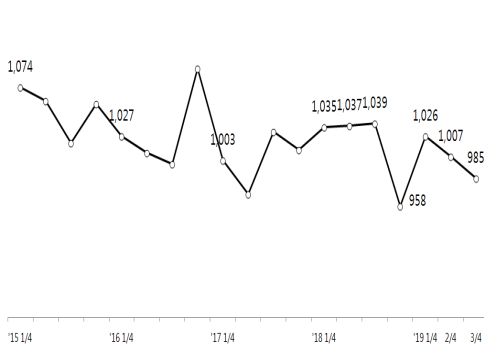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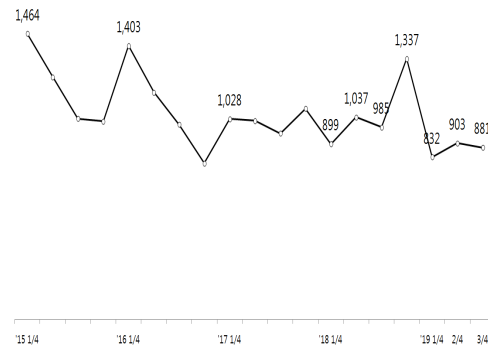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8〉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9〉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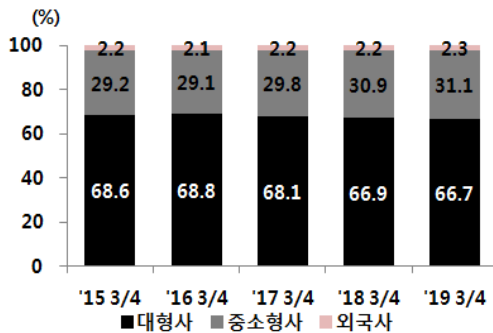
○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2015년 3/4분기 68.6%에서 2019년 3/4분기 66.7%로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29.2%에서 31.1%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11.1%p 확대된 49.0%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6%p 축소된 49.6%를 나타냄

○ 이는 중소기업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신규 판매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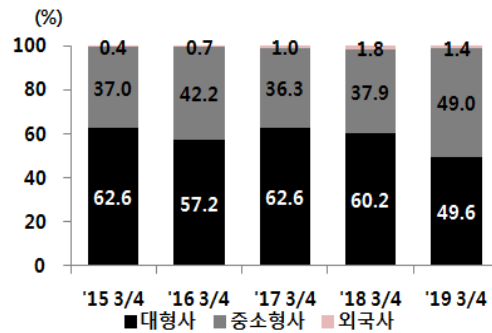
■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한 1,365를 나타냈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2 상승한 1,574를 나타냄

〈그림 10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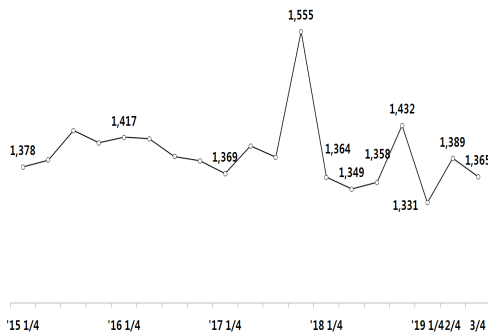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1〉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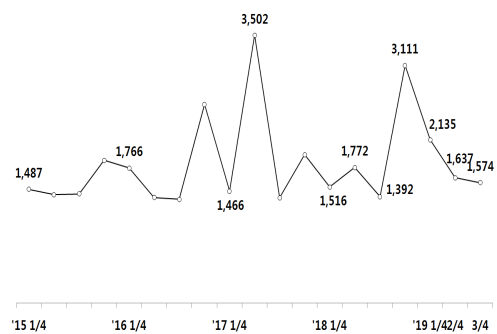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3〉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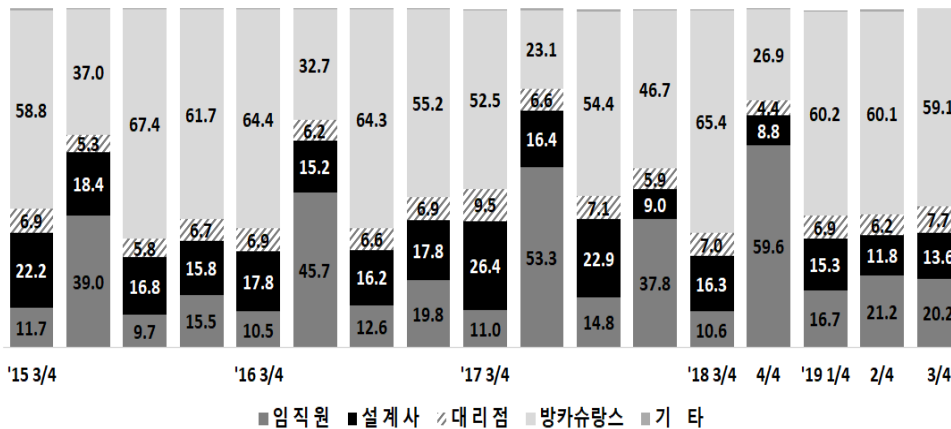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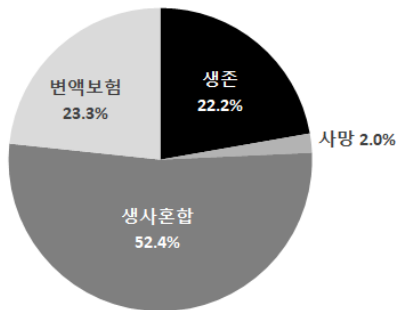
○ 임직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4〉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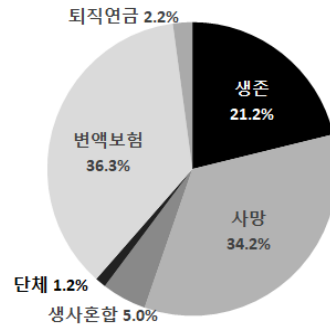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5〉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19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6〉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2019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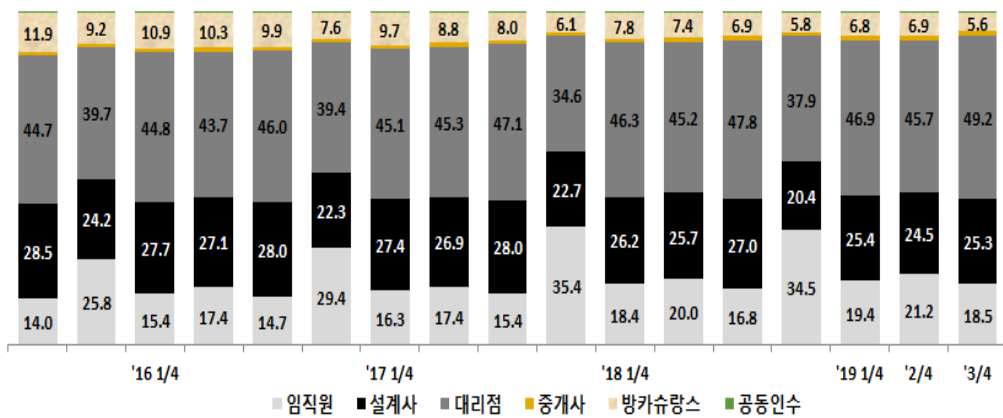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대리점과 임직원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판매한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5년 3/4분기 44.7%에서 2019년 4/4분기 49.2%로 확대됨

- 같은 기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28.5%, 11.9%에서 25.3%와 5.6%로 축소됨
- 한편, 같은 기간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로 14.0%에서 18.5%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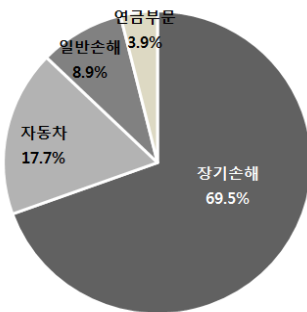
〈그림 107〉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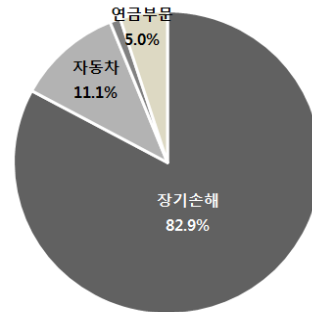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8〉 대리점 채널 종목별 비중 (2019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9〉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2019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로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점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2019년 겨울호 (통권 92호)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